
제8차 OECD통계위원회 및 제59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참가결과 보고

2011. 7.

통계청



목 차

I	개 요	
1.	회 의 명	
2.	참가목적	
3.	출장지역	
4.	출장기간	
5.	대표단구성	
II.	회의의제 및 일정	
1.	제 8차 OECD통계위원회 회의	
2.	제59차 UNECE통계기관장 회의	
III.	주요활동	
1.	국제통계 협력 활동	
2.	관찰 및 평가	
3.	회의별 주요 내용	
IV.	주요의제요약 및 검토의견	
1.	제 8차 OECD통계위원회 회의	
2.	제59차 UNECE 통계기관장 회의	

I. 개요

1. 회의명

- 제8차 OECD 통계위원회 회의
(8th Meeting of the OECD Committee on Statistics)
- 제59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59th Plenary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 참가목적

- 국제 통계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신의 정보와 이슈를 파악
- 세계 주요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들과 교류
- OECD통계위원회 의장단 활동 등

3. 출장지역 :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4. 출장기간

- 제 8차 OECD 통계위원회 : '11. 6. 16(목) 오후 ~ 6. 17(금)
- 제59차 유럽통계기관장회의 : '11. 6. 14(화) ~ 6. 16(목) 오전

5. 대표단 구성

- 단장: 이인실 통계청장
- 단원: 통계청 정인숙과장, 박상진 사무관
- ※ 유럽통계기관장회의는 박상진사무관만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

II. 회의의제 및 일정

1. 제8차 OECD 통계위원회

시간	안건	주제
6.16. 목		
14:30-14:45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젠다 초안 승인 ▪ 전차 회의록 채택 ▪ Housekeeping Announcements ▪ 의장 업데이트
14:45-15:00	II	OECD 통계국장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료이사회 2011결과 ▪ 2011-12 사업프로그램 추진사항 ▪ CSTAT 평가
15:00-15:45	III (1) (2)	CSTAT 국제관계/ 확대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보고 ▪ 2010 브라질 센서스 발표
15:45-16:30	IV (3) (4) (5)	국민계정과 국제교역관련 현안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계정 내 토지평가 ▪ 비관측 및 비공식 경제의 측정 ▪ 부가가치거래 측정
16:45-17:30	V (6)	녹색성장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보고
6.17. 금		
09:30-10:15	VI (7)	이스라엘 후속조치관련 데이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ta Study Report
10:15-11:15	VII (8)	러시아 가입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aft accession report
11:45-12:30	VIII (9) (10) (11)	발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K 발표 ▪ 프랑스 구두 발표 ▪ 주관적 웰빙 측정관련 가이드라인
14:45-15:30	IX (12)	미시-거시 통계관련 전문가 그룹에 대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보고
16:00-16:15	X (13) (14)	웰빙측정 컨퍼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라틴아메리카회의 결과 보고 ▪ 인도포럼 준비사항관련 보고
16:15-16:45	XI (15) (16)	신규 시각적 자료배포 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고 ▪ 사무국 발표
16:45-17:00	XII	신규 회원국(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의 구두보고
17:00-17:30		기타 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 가계의 비시장서비스 생산 측정 ▪ SDMX 컨퍼런스관련 보고 ▪ 데이터 수집 품질 검토 ▪ 2010 사업프로그램 이행관련 최종보고 ▪ 2012 의장단 선출

2. 제59차 UNECE 통계기관장회의

시간	안건	주제
6.14.화		
09:30-09:45	1	개회사 및 아젠다 채택
09:45-10:00	2	전차 회의에서 제기된 과제
10:00-16:45	FIRST SEMINAR SESSION: ON FOUNDATIONAL ISSUES OF STATISTICAL SYSTEMS	
	3	세미나: 자료수집 및 공유, SDMX 이행관련 관리 과제
10:00-10:20		소개 및 기조연설 - Mr. Enrico Giovannini (좌장)
10:20-12:30		Session 1: 자료수집 및 공유 세션조직: 네덜란드 (Mr. Hank Hermans) 초청논문: 네덜란드, 스웨덴 보충논문: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11:00-11:20	Coffee Break	
		Session 1: 계속 (논의)
12:30-14:30	Lunch	
14:30-16:35		Session 2: SDMX 이행관련 관리 과제 세션조직: 세계은행 (Ms. Shaida Badiee) 초청논문: 노르웨이, 러시아 보충논문: 독일, 이스라엘, 이태리, 스위스, 전 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캐나다, 유럽중앙은행, IMF
16:10-16:30	Coffee break	
16:30-16:35		요약(세션조직자)
16:35-16:45		요약 및 결론
16:45-17:30	4	공식통계의 생산 및 처리에 대한 전략적 비전 발표: HLG-BAS 회장 (네덜란드)
6.15.수		
09:30-16:00	SECOND SEMINAR SESSION: ON EMERGING ISSUES	
	5	세미나: 인력자원(Human capital) 측정
09:30-09:35		소개 - 뉴질랜드 (세미나 조직)
09:35-11:05		Session 1: 인력자원측정의 동인(drivers) 세션조직: 캐나다 (Wayne Smith) 초청논문: 캐나다, 핀란드 보충논문: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OECD, 세계은행
11:05-11:30	Coffee break	

11:30-12:30		Session 2: 인적자본측정관련 대안적 접근 세션조직: 노르웨이 (Olav Ljones) 초청논문: 호주, 미국 보충논문: 벨라루스, 이스라엘, 이태리, 노르웨이, 폴란드, 우크라이나, OECD
12:30-14:30	Lunch	
14:30-15:00		Session 2 계속
15:00-16:00		Session 3: 결론 및 후속조치관련 권고사항 세션조직: 뉴질랜드 (Geoff Bascand)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5	FORMAL BUSINESS	
16:30-17:30	6	CES 매뉴얼,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6.16.목		
09:30-12:30	FORMAL BUSINESS (계속)	
09:30-09:35	7	UNECE 지역관련 국제통계사업 조정
09:35-10:50	7a	선별된 통계분야에 대한 고찰(in-depth review) 결과
10:05-10:50	7b	'11년 가을 CES 뷰로에 의해 수행된 고찰에 대한 논의
10:50-11:10	Coffee break	
11:10-11:25	8	CES 2010 세미나 후속조치
11:25-11:35	9	통계 기밀성 (Statistical confidentiality)
11:35-11:40	10	CES 전문가팀 사업 및 경과보고서
11:40-11:50	11	통계기관장회의 조직
11:50-12:00	12	'12년 회의 주제 선정
12:00-12:05	13	CES 의장단 선정
12:05-12:10	14	기타
12:10-12:30	15	보고서 채택
12:30		폐회

1. 국제통계 협력활동

- 이인실 통계청장은 OECD 통계위원회(CSTAT)로부터 부의장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2년부터 부의장직 수행 예정이며, 국제 통계작성 기준을 정하고 글로벌 통계현안 세팅에 적극 참여하여 아국의 위상과 리더십 제고의 기회로 활용
 - OECD 통계위원회 본회의, 의장단(Bureau)회의 및 의장자문단(Friends of the Chair)회의에 참가하여 OECD의 통계 사업과 현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적극 표명
- EUROSTAT 통계처장과 한-EU 통계비교보고서 발간('11.10) 협의
 - 경제·사회·인구 등 10개 분야, 186개 지표 수록
- 네덜란드통계청과 개도국 교육사업 공조('11 하반기) 합의
 - 교육 콘텐츠 및 다른 교육 인프라에 관해 양 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 계획
- 브라질통계청과 통계발전 경험 공유 논의
 - 시작시기: 글로벌지리정보관리 국제세미나 개최시('11.10, 일산)
 - 분야: 토지자산 평가방법, 통계지리정보시스템(SGIS)
- 일본통계청과 "OECD 웰빙측정 아시아지역회의"('11.12.5 ~ 6, 동경)에 한국통계청이 관리하는 세계은행 개도국기금 활용 논의

- 제네바대표부 대사 및 차석대사와 면담
 - 아국의 글로벌 리더로서 보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한국통계청의 국제통계 사회내 역할 정립과 개도국 통계역량강화 지원활동에 대해 의견 교류
 - 통계의 품질 개선 및 정책 기반으로서의 통계의 중요성에 대해 환담

2. 관찰 및 평가

- OECD 통계위원회는 OECD 회원국 통계기관장과 국제기구 통계 부서장들이 세계 통계시스템이 나아갈 주요 방향, 의제별 실천방안 수립 및 이행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임
 - 아국은 동 회의를 통해 세계 통계 동향에 대한 최신정보 교류 및 고위급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각국 통계청과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아국의 위상과 리더십 제고의 기회로 적극 활용

3. 회의별 주요 내용

□ OECD 통계위원회 회의

- OECD 녹색성장 전략을 위한 지표
 - 녹색성장지표의 정책정합성, 분석견실성 및 측정가능성을 기준으로 각 국에서 유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고안된 지표에 대해 논의

(한국측 발언 요지)

- 지표체계의 ‘자연자산’ 그룹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입 요소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녹색성장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자연자산’ 그룹을 ‘성장의 사회-경제 특성’그룹처럼 녹색성장 지표들의 밖에 참고지표로 둘 것을 제안

- SEEA(환경경제통합계정)에서 녹색성장 개념들의 모든 지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SEEA를 녹색성장지표 부분적 통계 작성틀로서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지표 개념틀로의 역할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 향후 지표 개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 대응과 경제적 기회’에 기울이고, 녹색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가간 비교지표 작성을 위해 녹색산업과 녹색경제에 대한 분류 및 정의 등에 대한 작업 필요성 제기
- 국민계정에서 토지평가
- 토지측정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 국민계정 작업반(NAWP)과 금융통계작업반(FSWP) 공동회의기간에 토지평가를 위한 특별 세션과 토지 측정 T/F 설치 제안에 대해 토의
 - 각 국의 토지자산 측정방법 및 SEEA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추정치 산출 및 이용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 제안에 대해 토의
 - 많은 국가들이 토지가치 추계방법에 대한 공유 필요성에 공감하며 OECD 제안을 지지

(한국측 발언 요지)

- 한국에서 토지는 비금융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으로 토지평가 방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OECD 제안을 지지
- 한국은 토지자산 평가를 매년 실시(2009년 전체토지의 96% 평가) 하고 한국의 토지자산 추계방법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므로 우리의 토지자산 평가방법 및 추계방법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의사 표명

◦ 주관적 웰빙에 대한 가이드라인

- 국민의 웰빙과 사회 발전을 측정하기 위해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주관적 지표의 필요성에 대한 다수의 회원국간에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OECD 통계국이 개발 중인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토의
- 가이드라인초안은 금년 12월에 완료되어 통계위원회 회원국에 회람되고, 최종안은 2012년 통계위원회에 제출 예정

(한국측 발언 요지)

- 주관적 웰빙 측정이 웰빙과 사회발전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웰빙의 측정 틀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지
- 현재 개념틀에 있는 삶의 질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환경의 질, 물적 생활여건)에 대한 주관적 지표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 OECD 평가위원회의 통계위원회 평가

- OECD 평가위원회의 통계위원회 평가가 올해 하반기 ~ 내년 상반기 중에 있을 예정으로 이에 대한 준비 독려
- . 설문 대상: 회원국 및 자료 이용자
- . 평가 분야: 위원회 활동의 내용과 질에 대한 포괄적 평가

□ OECD 통계위원회 의장단 만찬회의('11. 6. 15)

- “국민의 공식통계 신뢰도” 조사표 최종안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
- 많은 멤버들이 공식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다각적인 결정요인의 존재, 특히 통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변인(정부 신뢰도, 미디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여 모든 국가에 공동으로 실시하고 순위를 매기는 데

대해 부정적 의사를 표명

- 따라서 정형화된 조사표를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각국의 재량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채택
 - OECD 통계위원회 멤버들의 타 OECD 위원회 관여 요청
 - 최근 OECD 기구들의 역할 강화 움직임과 범OECD 통계사업(horizontal projects)의 증가로
 - 통계국/통계위원회의 OECD내 타 국/위원회와의 협조·조정 역할이 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OECD 통계위원회 멤버들의 타 OECD 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언과 가이드 제공할 것을 권고
 - 관계강화국(BIICS*)을 위한 최소필수자료세트의 지정·관리 제안토의
 - 캐나다가 관계강화국에 대한 최소 필수자료세트 지정·관리를 제안했으나 기존 다양한 부문별 지표세트와의 중복성 문제로 멤버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
- *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 2011. 2월 UNSC회의와 2011. 3월 UNECE 회의결과 보고
 - 2011. 2월 UNSC회의에서 글로벌지리정보관리(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GGIM)회의가 2011 10. 24~26서울에서 개최됨을, UNDP의 인간개발지수 측정에 관한 중간보고서가 회원국에 제출, 의장자문단(Friends of the Chair, FoC)가 미국의 주도로 형성
 - 2011. 3월 UNECE 회의에서 지속개발의 측정, 남동유럽, 동유럽,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환경지표 생산에서 통계능력 강화, 기후변화

관련한 통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에 대한 프레임워크 개발주문

◦ 자료수집 및 공유의 조직

- 다양한 자료원(multi-sources)와 혼합모드(mixed-mode) 자료수집을 포함한 통계자료수집을 위한 조직모델을 중점적으로, 특정 조직모델 사용을 결정하게 된 이슈, 경험, 원칙에 대해 다루고 다양한 자료수집을 위해 지금까지 얻었던 경험에 대해 토의
-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필요한 trade-offs를 일부 포함하지만 통계조직내 자료수집의 집중화 경향이 여러 국가에서 보임
- 더 효과적으로 혼합 그리고 2차 자료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국가에 대한 토의도 있었으며 이 경우 자세한 메타자료의 작성과 품질 프레임워크의 개발 필요성 강조
- 자료수집전문가를 위한 포럼의 부재를 지적과 함께 CES 주도로 전문가 그룹 제의했으며 의장단과 사무국에 후속조치 요구

◦ SDMX 이행관련 관리 과제

- SDMX* 이행관련 SDMX의 거버넌스 모델과 어떻게 국제기구와 국가 통계청 간의 욕구를 일치시킬 지 논의
- * Statistical data and metadata exchange

- DDI*와 같은 다른 표준과 함께 SDMX의 사용이 제기되었고 다른 기술표준과 가교역할을 하는 High-level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내용표준의 사용도 제안됨

* Data Documentation Initiative

-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전략개발을 위한 High-level 그룹의 비전
 - 2010년 CES는 공식통계가 생산되는 방식에서 전략발전을 가이드

하고 반영하게 여러 국가 및 국제기구 통계기관장이 포함된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전략개발을 위한 High-level그룹 발족시킴.

- 관련 주제에 대해 많은 국제적 이니셔티브의 전략방향과 조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전을 발표했으며 CES는 고위급 그룹의 비전과 작업을 지지하며 2012년 회의에서 추가 진행상황 보고를 요구

◦ 인적자본의 측정

- 인적자본측정을 왜 측정해야 하는 지, 측정방법 등에 대해 토의
- 이것은 교육과 다른 지식투자의 이득, 경제성장과 생산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며 다른 통계이슈 즉 무형자산, 경제적 자본, 생산성, 경제성장, 가구 계정, 웰빙 측정, 지속가능성과 인구학적 변화와 연결되기에 품질 측정의 필요성 제기
- 인적자본 측정방법에 대해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전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쌓아온 인적자본의 축적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비정규 교육에서 얻어지는 기술에 대한 고려 필요성 제기
- 복잡한 인적자본의 동인(drive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자료를 이용한 리서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고품질의 국가통계와 자료 셀에 대한 투자에 공감
- CES는 인적자본의 세밀한 개념정립과 개념이슈와 자료 이슈의 분리 필요성 제기했으며 2년 이내 국민계정, 지속가능성 개발, 교육통계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소그룹에서 OECD, World Bank, UNECE등의 관련 작업과 경험 자료를 모아 CES에 보고 요청

- 2012년 정기총회 일정
 - 의장단에서 지금까지 처럼 내년 6월 개최의견을 총회에 제출하였고 CSTAT(4월 예정)와 연계하여 개최 선호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가 있어 합의를 이끌지 못하고 새 의장단이 해결토록 함

- 2012년 정기총회 세미나 주제 채택
 - 총회 회원국과 국제기구로부터 2012년 정기총회 기간 중 세미나 주제 목록을 취합하여 결정
 - 국가통계시스템의 조정(Coordination)과 공식통계의 근본원칙 이행주제로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에서 논문제출 예정이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도전주제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포르투갈에서 논문제출 예정

- 2011년~2013년 의장단 선출
 - 의장: Mr. Enrico Giovannini(이태리)
 - 단원: Ms. I. Krizman (슬로베니아), Mr. O. Osaulenko (우크라이나), Mr. E. Pereira Nunes (브라질), Mr. Louis Marc Ducharme (캐나다), Ms. Jil Matheson (영국) Mr. Geoff Bascand (뉴질랜드), Mr. Priit Potisepp(에스토니아)

IV. 주요 의제 및 검토의견

1. 제8차 OECD 통계위원회

1. 의제 2: 통계 위원회의 글로벌 관계 전략 업데이트 /
2. 의제 3: 국민계정에서의 토지평가 /
3. 의제 4: 비관측 및 비공식 경제의 측정 /
4. 의제 5: 부가가치거래 측정 /
5. 의제 6: 녹색성장지표 - 측정 아젠다 /
6. 의제 ACS 2: 이스라엘 통계자료 검토보고 /
7. 의제 ACS 1: 러시아의 OECD 가입후보국 지위에 따른 통계시스템과 통계에 관한 검토의 중간보고서 /
8. 의제 7: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
9. 의제 8: 가계소득, 소비 및 부에 관한 미시통계와 국민계정 체계내의 불균형에 관한 두 전문가그룹 활동 진행상황 /
10. 의제 9: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
11. 의제 10: 가계의 비시장서비스 생산 추계를 물질적 웰빙관련 국제비교에 통합하기 /
12. 의제 11: SDMX 국제회의 2011 보고서 /
13. 의장단회의 의제: 공식통계 신뢰측정 /

#2: 통계 위원회의 글로벌 관계 전략 업데이트 (Updating the Global Relations Strategy of the Committee on Statistics)

주요 논점

- ◇ EE 국가들*에 대한 OECD 아웃리치의 개관 및 의미 요약
* EE: Enhanced Engagement countries
- ◇ 비회원국 참여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글로벌 전략사항 정리

□ 개요

- 본 보고서는 OECD, CSTAT, STD(통계국)의 최근 아웃리치 전략과 활동을 정리함

□ OECD의 확장 및 아웃리치(enlargement and outreach)의 개관

- 7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약 20년간 OECD의 멤버쉽은 안정되어 있었으나 냉전의 종결과 신흥경제의 등장으로 지난 10년간 OECD 멤버쉽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회원국들은 OECD가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기구가 되기 위하여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는(proactive) 기구로 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함
- 2004년 프로액티브한 전략 개발을 위한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나 신중한 접근을 권고받음. 2007년 칠레,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와 논의를 시작하고 가입을 위한 조건 및 절차 수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2010년 가이드라인은 EE5 국가들(BIICS)의 완전한 참여 가능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진술함

□ CSTAT와 STD의 글로벌 관계 활동

- 2006 CSTAT 전략은 비회원국의 OECD 통계사업 참여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며 이는 모든 국가에 의해 생산된 통계의 이용가능성, 품질 및 비교가능성을 개선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간 통계작성 표준의 차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특정 비회원국(NMEs)*을 포함하기 위하여 다른 OECD 위원회들이

NMEs를 통계사업에 포함도록 장려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조함
*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지난 몇 년 동안 사무국은 OECD 경제지표 및 Factbook 데이터 수집을 위해 EE국가들과 업무를 진행해 옴

□ CSTAT의 비회원국 참여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상태

- 현재 비회원 정규(regular) 옵저버국은 브라질, 인도, 루마니아,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임. 불가리아, 중국, 인도네시아는 비정규(ad-hoc) 옵저버국으로 위원회 및 산하단체의 2011회의에 초청됨
- 모든 정규 옵저버국은 2011년 말 만료되기 때문에 위원회는 연장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옵저버국의 참가 형태에 사용되는 기준을 검토해야 함

□ CSTAT 글로벌 관계 전략 업데이트

- CSTAT 글로벌 전략의 업데이트는 대상 국가에 정확한 정보 및 중. 단기 활동 성과와 함께 기존 문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것임
- 초안은 i) OECD 데이터베이스에 EE국가의 고품질의 비교가능한 통계를 갖추도록 보장하고, ii) EE국가의 통계개발에 사용된 방법과 표준에 대한 완전한 이해 및 메타자료의 발간 보증, iii) EE국가가 회원국의 유사한 통계 방법과 표준을 채택하도록 지원하고 종합적인 통계메타자료를 발간하도록 격려하는 등을 목적으로 함
- 목표 추구를 위해 EE, CSTAT 회원국의 통계기관장과의 관계강화, 상호이해, 기본 OECD 통계필수사항의 표준세트 개발 등이 예정됨
- CSTAT 글로벌 관계전략의 지지로 다음 사항들이 사무국에 요청됨: 통계 및 메타자료 수집을 위해 EE국가의 통계청과 연락망 수립, OECD의 다른 국과의 협력, EE국가의 통계시스템 및 통계에 대한 상호검토(peer review) 역량 개발, EE국의 OECD 통계에 대한 접근성 보장

□ 논의 및 고려사항

- 글로벌 관계 전략의 목적 및 주요 요소에 대한 제안 논의
- 비회원 참여에 대한 현 CSTAT의 기준에 이루어져야 할 조정사항들
- EE국가들의 완전 참여에 대한 고려

#3 : 국민계정에서의 토지평가 (Land Valuation in the National Accounts)

주요 논점

- ◇ 토지측정의 필요성 및 특별 세션 구성의 배경 제시
- ◇ 최근 제기된 관련 문제들을 열거하고 CSTAT 위원회를 위한 질문사항을 제시

□ 개요

- 금융위기 이후, 2009년 10월 개최한 IMF와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공동회의 관련 보고서(The Financial Crisis and Information Gaps)에 금융위기로 알게 된 정보 차이를 다루는 20개 권고를 수록
- 이중 15번째 권고에 대한 전략으로 2011년 3월 OECD와 IMF는 공동으로 “거시경제계정에서 제도부문별 분류와 플로우 데이터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개최
- 회의는 금융자산과 플로우 측정에 대한 필요와 관련된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며 중요한 결론 중에는 대차대조표 상 더 나은 토지 추산을 위한 요청이 포함됨

□ 토지 평가에 관한 특별 세션

- 토지가치 추계관련 주제는 비금융자산,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 녹색성장, 가구 웰빙 등의 측정에서 정기적으로 다루며 SEEA에서도 중심에 있음
- 소수의 시도를 제외하고 나라마다 토지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은 거의 없음
- OECD는 토지 측정에 관한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금년 국민계정작업반(NAWP)과 금융통계작업반(FSWP) 공동회의기간에 토지평가를 위한 특별 세션을 개최할 계획이며 CSTAT에 2012년 토지

측정관련 T/F를 만들도록 제안할 수 있음

- 토지평가와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최근 제기된 문제로는 조성된 토지(produced land) 측정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정부소유토지의 평가방법, 토지 재평가(가격) 및 기타변동규모(양적/질적)로 기인된 가치 변동 차이, 기타 개념적 과제들, 토지사용형태별 토지분류 개발 필요성 등이 있음
- 토지의 규모(volume)/가격(price) 변동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렵고, 규모와 가격 둘 사이의 구별이 많은 부문에서 문제인데 특히 성장계정(growth accounting)에서 문제
- 많은 국가들이 특정 시점의 토지가치에 대한 추계치를 현재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특별 세션의 중요성이 정당화됨

□ 제안된 조사

- OECD는 issue paper 작성과 함께 국가들이 토지 측정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교한 조사를 고려, 조사에는 토지 추정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질문과 특히 SEEA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추정치 이용이 가능하거나 또는 추계되는지를 질문할 예정

□ CSTAT 위원회를 위한 질문

- 금년 개최계획인 NAWP/FSWP 공동회의에 토지평가 논의를 위한 특별세션 마련을 지지하는가?
- 특별세션 개최 전에 국가 내 토지측정에서 사용되는 실례 및 각 국의 토지 가격/규모 변동 감지방법에 관한 조사의 개발 및 보급을 지지하는가?

(지역소득통계팀)

- 토지는 특히 부동산 가격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는 중요한 자산이며, 한국의 경우 비금융자산에서 토지자산의 구성비는 2009년 말 기준 46.9%로 자산들 중 가장 비중이 높음
- 이와 같이 비금융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자산의 평가방법에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OECD의 2가지 제안을 지지함
- 한국의 토지자산 추계방법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 왜냐하면 한국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많아 지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 정부가 토지가치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년 토지가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 통계청은 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 자산을 추계하고 있음
 - 2009년에는 한국 영토 내 전체 토지의 96%에 대해 가치 평가
 - 토지의 형태는 사용용도에 따라 28개로 구분하고 있으나 토지자산 추계에서는 이를 6*개로 통합하여 추계
 - * 농경지, 임야, 대지, 공공용지, 공장용지, 기타용지
- 필요하다면 한국은 토지의 평가방법 및 토지자산 추계방법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할 의사가 있음

Comments Land Valuation in the National Accounts

(지역소득통계팀)

- Land is a highly important asset in Korea, as real estate is relatively more expensive compared to other nation. Taking up 46.9% of non-financial assets at the end of 2009, land makes the largest asset in Korea.
- Therefore, we hope that the problems arising in the course of land valuation can be resolved, and support the two suggestions proposed by the OECD.
- The estimation method used in KOSTAT can be a useful example for reference. The price of real estate in Korea increases each year due to huge speculative activities. The Government has put in place an annual valuation system, which is conducted by a specialized valuation agency.
 - In 2009, 96% of the total land was valued.
 - Land is classified into 28 types by land use type. For estimates of land assets, they are classified into 6 groups; farmland, forest land, building site, public land, factory site, and other land use.
- We support the proposal to have a special session on land valuation and would be happy to share our experience with others.

#4: 비관측 및 비공식 경제의 측정 [Measuring the Non-observed and Informal Economy]

주요 논점

- ◇ 비공식 경제 측정의 배경과 연구의 발전과정 설명
-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측정 방법론의 세부적 소개
- ◇ “비관측경제에 대한 서베이”의 실시여부 결정 및 동 서베이 질의서에 대한 의견 수렴

□ 개요 및 배경

- 2002년 OECD는 GDP의 비배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문제 영역; 지하생산, 불법생산, 비공식부문생산, 자가최종사용목적 가계생산, 자료수집프로그램에서의 불완전으로 인한 생산의 누락(통계적 지하)을 다룬 핸드북을 출간함
- 세금관련 문제와 국제 비교성 등의 과제를 가지고 2011년 3월 OECD 경제정책위원회의 작업반 회의에서 비공식적 경제, 특히, 지하생산 활동에 초점을 둔 세부 연구관련 제안서가 제출됨
- 제안서는 사회보장 및 보험, 성장 및 생산성, 조세수입의 잠식(erosion),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경제적 측정 등 비공식 경제의 측정을 주요 정책관점 개발의 주안점으로 다룸

□ 제안된 서베이

- 비관측경제(NOE)는 통계와 경제적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분야이므로 주제적(thematic) 방식의 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Eurostat이 사용하는 “Tabular Approach”를 기반으로 동 서베이를 실시하고자 계획함

- “Tabular Approach”은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으로 작용하는 비배제성 형태에 대한 가능성에 따라 생산자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국내 비교 및 국가 간 비교에도 영향을 줌
- 본 보고서에서 제안된 서베이는 표(Table S1)에 기초하며, N-타입, 산업 부문, 기업/사업체 규모 및 제도부문으로 NOE를 위해 조정되어 반영됨
 - 7가지의 포괄적인(Non-exhaustive) 질문을 통해 생산자를 N1-N7*까지로 구분하고 이들의 생산액을 산업별로 제도부문 및 기업형태별로 세분하여 조사하도록 구성
 - * 등록하지 않은 생산자(N1), 불법생산자(N2), 미등록 생산자(N3),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등록법인(N4), 통계에 포착되지 않은 기업가(N5), 의도적 오류보고 생산자(N6), 통계오류(N7, 미수집으로 인한 경우(N7a),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은 경우(N7b))
- 사용된 방법을 설명하는 보충 질문이 요청될 것이며 각국은 그들이 선택한 양식으로 요청 정보를 제공하고 OECD가 추후 공통된 포맷으로 취합할 것임
- 기밀성(confidentiality) 때문에 접근방법은 유출하지 않으며 OECD는 기존의 방식대로 통계와 방법을 OECD 외부로 보급하지 않을 예정임

(한국은행)

- 기본적으로 비관측경제를 포착함으로써 GDP의 포괄성을 제고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
- 다만 동 서베이 질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비관측경제에 대한 규모에 대한 자료가 선행적으로 존재할 필요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동 질의서를 작성하기는 어렵고, 향후 지하경제 등 비관측경제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다른 국가들의 경험 및 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할 필요

Comments Measuring the Non-observed and Informal Economy

(한국은행)

- Basically we agree with the intention of improving the exhaustiveness of GDP estimates by measuring the NOE.
- For a reliable survey, however, there is a need for information or data on the size and types of the NOE. We have yet to estimate the size and types of the NOE.
- Therefore, we cannot complete the questionnaire satisfactorily as of now. We need some time to determine estimation methods for measuring the NOE from the experience and research of other nations.

#5 : 부가가치 거래 측정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주요 논점

- ◇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프로젝트의 세부 절차와 일정 보고 및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 개요

- 기존 무역통계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 사이의 부가가치 흐름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정보의 개발을 목적으로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프로젝트를 수행*
 - * 동 프로젝트는 지난 2월 OECD 통계위원회의 의제로 검토되어 2011~2012년 중 수행하도록 예산이 승인
- 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일정을 위원회에 보고
 - 먼저 OECD가 보유한 각 국의 산업연관표, 국가간 대외거래, 기업별 거래자료 등 기초자료를 통해 국제 산업연관표를 작성
 - I-O framework을 이용하여 국가간 대외거래에 따른 국가별 부가가치 흐름에 대한 정보를 추출
- 현재 프로젝트는 한시적으로 승인되었으나, 향후 OECD의 생산 통계로 지속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요청

(한국은행)

○ 프로젝트 수행 절차 및 일정 관련

- 절차와 일정에 관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음
- 다만, 국제산업연관표 작성 대상연도, 대상국가, 작성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후 동 정보를 공람할 수 있기를 기대함

○ 동 프로젝트의 지속 여부 관련

- 국제생산네트워크(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을 미루어 볼 때 동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국가간 부가가치 흐름의 측정은 부가가치 측면의 국가간 상호의존도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정보로서 유용성이 매우 클 것임
- 다만, 현재 가용한 각 국의 산업연관표(benchmark tables)는 대부분 2005년 기준으로 최근의 상황을 대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
- 따라서, 동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갱신.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아울러 각 국의 산업연관표 편제 실무자와의 의견 교환 등 협조가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Comments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한국은행)

- In regards to the work-plan and time-line for the project,
 - We do not have any comments at this time concerning the work-plan and time-line.
 - We hope to have access to additional information such as the target years, target countries, and compilation methods when specific plans are drafted.

- In regards to the continuity of this project after 2012,
 - Considering the recent complex and diverse trend of the international production network, measuring trade in value added provides invaluable statistical information as it explains the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in terms of value-added.
 - However, since most national input-output tables (benchmark tables) currently available are produced based on the year 2005 as the base year, we think that the result of this project should be updated and that this project should be continued in order to reflect recent trends.
 - We also believe that cooperation and exchange of opinions among working groups who compile Input-output statistics of each country are crucial for the success of this project.

#6 : 녹색성장지표 - 측정 아젠다

[Green Growth Indicators: Pursuing the Measurement Agenda]

주요 논점

- ◇ 동 보고서는 지표설계관련 프레임워크를 요약하고 지표 목록을 개관함
- ◇ 동 보고서의 주요목적은 녹색성장지표관련 업무에서 제기된 측정 아젠다 논의 및 중.단기 이행활동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가이드스 제공에 있음

□ 개요 및 배경

- 2009년 OECD는 2011년 각료이사회 발표용으로 녹색성장전략을 준비하도록 요청받았으며, 동 보고서는 녹색성장지표관련 업무에서 제기된 측정 아젠다 논의 및 중.단기 이행활동 중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가이드스 제공에 있음
- 녹색성장 촉진 프레임워크 조건의 개발과 이행에는 녹색성장의 결정요소(determinants)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정책분석을 뒷받침 하고 발전을 모니터링하는 적절한 정보가 요구됨
- 동 보고서에 제시된 녹색성장 지표세트는 지표목록의 출발점이며, 신규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개념의 발전에 따라 향후 더욱 정교화 될 예정임. 지표설계관련 활동에서 얻은 결론은 측정 아젠다임

□ 지표틀

- (I.환경.자원 생산성) 자연자산 투입* 대비 경제적 산출량으로, 생산 기반 및 수요기반 생산성 측정
 - * 땅에서 나온 광물처럼 비재생 자원 또는 어족자원처럼 재생 자원의 투입이나 자연이 오염원을 흡수하고 생산 활동 잔여물을 처리하는 형태의 서비스
- (II.자연자산) 자연자산* 감소는 성장에 리스크 요인이므로, 자연자산이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그 물리적 변화량**을 측정
 - * 포괄적인 의미로 생산된 자산과 생산되지 않은 자산을 모두 포함

** 대부분의 자연자산에 가격이 없으므로 현재 물리적 변화량을 측정하지만, 장래에 적어도 일부 주요 자연자산의 금액화 노력에 진전이 필요

- (Ⅲ.환경관련 삶의 질) 환경은 건강 상태와 복리후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인간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 산출물을 측정
 - * 생산과 소득의 증가가 전반적인 복리후생 개선을 수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회의 공익 증진은 자연자산의 상태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음
- (Ⅳ.경제적 기회와 정책 대응) 1)환경적 고려에서 발생하는 기회 (녹색 성장 잠재력*)를 ‘녹색 상품’의 무역,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측정, 2) 적정가격 추구의 경제활동이 환경에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 대응을 측정

□ 측정에 관한 아젠다

○ 환경경제계정 틀 도입

- 녹색성장지표 측정에 관하여 중요한 의제는 일관성* 있는 환경경제계정 틀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으로, SEEA**(System of environment and economic accounting)가 그러한 틀로 제공될 수 있을 것임
 - * 녹색성장 지표에 필요한 많은 경제 및 환경 정보가 존재하지만 상이한 분류체계, 용어, 시의성 등 일관성 문제로 이들을 결합시키는 작업이 쉽지 않음
 - ** 현재, 초안이 UN에서 검수 중이며 일부 장(chapter)은 국제적 자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2012년 UN통계위원회에서 제출 예정

○ 헤드라인 지표 선정

- 녹색성장 개념의 주요한 요소와 광범위한 녹색성장 관련 문제들을 대표할 수 있는 헤드라인 지표세트를 제안된 바 있었으나, 지표선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국간의 의견 차이가 많아서 향후 추진 의제*로 하여 보고서에서 제외
 - * 국가통계청과 기타 국가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대표자들로 소규모 TF팀을 구성하여 계속 작업할 것을 제안함(이 작업은 UNEP의 녹색경제지표 개발 작업과 협력하게 됨)

○ 특정 분야

- 녹색성장지표에서 부족한 부분은 ‘산업(수준)별’ 환경-경제 데이터의 부재임
- 주요 자연자산에 대한 금액화 작업을 위한 ‘확장 성장 계정’ 작업반의 발기를 제안함

참고 지표목록

주요 지표 그룹	측정 대상
성장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특징	
경제성장, 생산성, 경쟁력	경제성장과 구조 생산성과 무역 물가, 상품 가격
노동 시장, 교육, 소득	노동 시장 (고용 / 실업) 사회-인구통계적 패턴 소득과 교육
환경과 자원 생산성	
탄소와 에너지 생산성	1. 탄소 생산성 (수요 기반, 생산 기반)
자원 생산성	2. 에너지 생산성 3. 물질 생산성 (수요 기반, 생산 기반) 비에너지 물질, 폐기 물질, 영양소
다요소(multi-factor) 생산성	4. 물 생산성 5. 다요소 생산성 환경 서비스 포함
자연자원 기반	
재생 가능한 비축 자원	6. 담수 자원 7. 삼림 자원 8. 어족 자원
재생 가능하지 않는 비축 자원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9. 광물 자원 10. 토지 자원 11. 토양 자원 12. 야생생물 자원
환경적 삶의 질	
환경 보건과 리스크	13. 환경 유발 보건 문제 및 관련 비용 14. 자연 혹은 산업 리스크에의 노출 및 관련 경제적 손실
환경 서비스 및 시설	15. 하수 처리 및 식수 접근성
경제적 기회 및 정책 대응	
기술과 혁신	16. 녹색 R&D 비중 17. 녹색기술특허 비중 18. 환경 관련 혁신
환경 상품 및 서비스 GG를 위한 국제 금융 흐름의 중요성 가격과 이전	19.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생산 20. 국제 녹색금융 흐름 21. 환경 관련 과세 22. 에너지 가격 23. 물 가격과 원가 회복
교육 & 기술 발달	
규제 & 관리 방안	지표 개발 중:

(연구기획실)

1. ‘녹색성장지표 보고서’에 대한 검토

- 지표체계의 ‘자연자산’ 그룹이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투입 요소인 것에는 동의하지만, 녹색성장 이행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적합한지는 여전히 의문임
 - 지표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많은 국가의 탄소배출과 GDP의 탈동조화는 녹색성장 이행을 의미하지만, 상대적인 탈동조화는 절대적인 자연자산의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음
 - 따라서, ‘자연자산’ 그룹은 ‘성장의 사회-경제 특성’ 그룹처럼 녹색성장 지표들의 외부에 참고지표로 위치할 것을 제안함

2. ‘측정에 관한 의제’에 대한 검토

- SEEA에서 녹색성장 개념들의 모든 지표를 제공될 수 없음. 따라서 SEEA를 녹색성장지표 부분적 통계 작성틀로서 사용에는 동의하지만 지표 개념틀로서 역할에는 동의하지 않음
 - 또한, 나머지 측정 의제의 대부분을 환경-경제 계정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 보고서의 목적이 되는 ‘녹색성장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녹색성장지표’와는 거리가 있음

3. ‘향후 추진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 상대적으로 지표 개발이 미흡한 ‘정책 대응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임
 - 녹색산업과 녹색경제에 대한 분류 및 정의 등에 대한 작업으로 녹색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지표의 작성이 가능해 질 것임

(연구기획실)

1. Comments on the Report on the Green Growth Indicators

- Statistics Korea agrees that the second indicator group, that is, the 'natural asset base' is an important input for continuous growth;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it can be treated as a dimension for the measurement of progress toward green growth.
 - As mentioned in the Report, decoupling of carbon emissions from the GDP in many countries will accurately reflect progress toward green growth. Yet, relative decoupling will not automatically produce an absolute increase of natural assets.
 - So, we propose to take out the 'natural assets' group and place it outside the framework as a contextual variable, just like the way that the 'socio-economic context and characteristics of growth' was treated in the Report.

2. Comments on the Measurement Agenda

- The SEEA cannot possibly provide every indicator for the conceptual framework of green growth, so we have some second thoughts about using the SEEA as the conceptual framework of indicators.
 -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green growth indicators framework is intended as a strategy to support green GROWTH policy, the over-reliance on the SEEA for most of the measurement agenda does not look balanced.

3. Comments on 'Priority in Near- and Medium-term Implementation Efforts'
-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the work in the area of economic opportunities and policy responses, where development of indicators is relatively insufficient.
 - Through further work on the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green industry and green economy, internationally comparable indicators for green growth potential will be produced.

4. International Seminar on Green Economy and Official Statistics

- Lastly, let me take this opportunity to announce an international seminar we are organizing on "Green Economy and Official Statistics," in collaboration with the UN Statistics Division and Eurostat, and OECD.
- It will be held in Seoul next month, from July 6 to 8.
- Some 100 high-level government statisticians and policy makers from 40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e expected to attend it to discuss what kind of role national statistical offices should play to effectively address the green growth agenda.
-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the Seminar and hope to see you in Seoul.

참고 녹색성장과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 회의명 : 녹색성장과 공식통계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Seminar on Green Economy and Official Statistics)
※ 유엔통계처와 통계청은 매년 글로벌 의제 국제회의 공동개최('10년 : ICT통계)
- 일시/장소 : '11.7.6.(수) - 7.8.(금) / 서울 잠실롯데호텔
- 주최 : 한국 통계청/UN통계처
- 회의 규모 : 국내외 110여명 (국외참가자 40개국 60명 포함)
※ 공식언어 : 영어 (한-영 통역제공)
- 프로그램 : 유엔측, 전체 프로그램 디자인(※ 통계청은 한국세션 운영)

시 간	날 짜	7.6(수)	7.7(목)	7.8(금)
09:00~09:20		개회식(청장, GGGI, UNSD)		세션 7
09:20~10:00		기조연설(녹색위)		통계분류 적용:녹색산업, 녹색일자리 등
10:30~10:30		Break (포토세션 포함)	세션 3	
10:30~12:00		세션 1: 한국세션 (한국의 녹색성장전략 및 공식통계)	탄소배출거래제 통계적 이슈	세션 8 개도국 관점의 통계적 이슈
12:00~13:30		오찬(통계청장 주제)	오찬	오찬
13:30~17:30		세션 2 녹색성장과 공식통계 (좌장 : 통계청장)	세션 4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세션 5: 생산효율성 세션 6: 소비효율성	최종정리(Wrap-Up_ (14:00~17:00) 폐회사(통계청) (17:00~17:15)
18:00~19:30		환영만찬(국외인사 발표자)		환송만찬(고위급인사)

- 한국세션 : 한국의 녹색성장정책 및 통계개발 사례 공유
 - 좌장(Chair) : Mr.Paul Cheung (UN통계처장)
 - 논문 및 발표자

발표주제(안)	발표자	발표 부처(안)
① 녹색성장정책(5개년계획)	국장	녹색성장위원회
② 녹색산업 육성정책	미정	지식경제부
③ 한국통계청의 녹색성장통계 개발 사례	최연옥	통계개발원장
④ 녹색경쟁력 지수 개발	미정	삼성경제연구소

#ACS 2: 이스라엘 통계자료 검토 보고

주요 논점

- ◇ 이스라엘의 거시경제, 인구 통계의 국제기준 준수, 용어 일관성 및 1967년 전·후 국토 포함범위에 따른 통계수치의 변화 검토결과를 보고함

□ 논의 배경

- 2010년 3월 11일 이스라엘의 OECD 가입시 CSTAT은 이스라엘의 지리적 포괄범위, 통계 수집 및 취합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가입 후 1년 이내에 통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토록 권고
- CSTAT에 의해 승인된 ToR에 따라 국가총계(national aggregate)의 조사범위와 시산에 사용된 지리적, 인구 단위의 기본 개념 수립, 국제통계표준 준수 여부 파악 및 골란고원, 동 예루살렘, 분쟁 지역인 서안 지구를 포함할 때의 총계에 대한 양적 영향 평가가 실시됨

□ 국제표준 준수

1. 거시경제 통계

- 이스라엘 거시경제 통계는 제도적 단위, 거주, 경제권(economic territory) 및 국가경제에 대해 SNA93과 BPM5를 따르고 있으나, 집합적(aggregate) 거시경제통계는 SNA08과 BPM6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SNA08과 BPM6의 개정 매뉴얼에 따르면, 경제권이란 통계를 필요로 하는 지리적 영역 및 관할구역이며 단일 정부의 효과적인 경제 통제 하에 있는 영역을 뜻하고 더 이상 사람, 상품,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요구하지 않음
- 이스라엘은 기업체와 사업체의 차이에 대한 SNA93의 권고사항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음

2. 인구 통계

- 이스라엘은 인구센서스의 지리적 및 인구 포괄범위에서 영토(territory)에 대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한다는 UN원칙을 준수하고 있음

□ 이스라엘 통계의 지리적 구조 및 범위

1. 지리적 분류체계(geographic hierarchy)에서 골란고원, 동 예루살렘, 서안 지구에 대한 취급

- 골란고원은 sub-district로 분류되어 sub-district 수준의 통계자료에 수록되고 있음
- 동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일부이며 “동 예루살렘” 수준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음
- 지리적 분류체계 내에 서안 지구의 장소는 명확히 나와있지 않으나 “유대.사마리아(서안 지구)”로 통계가 제공되고 있음
- 검토팀은 CBS에 통계 수집과 자료 제공시 공식 지리 분류체계에 서안 지구 내 이스라엘 정착지역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2. 주제영역별에 따른 지리적 및 인구 범위관련 문서

- 검토팀은 CBS에 지리적 포괄범위관련 메타자료를 검토하고, 이용자를 위한 일관된 취급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표준 문구 사용 및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3. 국적 vs. 거주 : 인구 범위관련 문서

- 이스라엘 통계는 국적이거나 종교가 아닌 거주(residence)를 토대로 작성되어 골란고원, 동 예루살렘 및 서안지구의 모든 거주민을 포함하나, 유대인 지역이나 유대 인구와 관련한 잘못된 기준(references)이 여전히 잔존
- CBS는 국적별 범위로 발생할 수 있는 혼동 제거를 위하여 유대인 지역이나 유대 인구와 관련된 메타데이터에 대해 검토하도록 권고받음

□ 지역관련 기본 인구학적 특성

- 인구는 1967년 이후 이스라엘 지역(위 3지역) 포함시 11.5% 증가하고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2%p(1997-2009년 간) 상승, 15세 미만의 인구는 1.2%p 상승
- 1967년 이후 지역 포함시 노동시장 지표에는 큰 영향이 없음
 - 노동참여율은 66%에서 65.1%, 고용률은 60.9%에서 60.1%로 감소
- 가구 수입 불평등은 1967년 이후 지역이 이전 지역보다 10%정도 높지만 두 자료를 합하면 1967년 이전과 비슷함
 - 빈곤률은 1967년 이후 지역이 23.4%로 1967년 이전 지역의 20.2%보다 높고, 두 지역을 합치면 빈곤율은 21.7%
- 검토팀이 이스라엘의 GDP를 top-down 방식으로 추계한 결과, 1967년 이후 지역 포함시 GDP가 4% 증가하지만 일인당 GDP는 6.5% 감소

(한국은행)

- 이스라엘 거시경제통계에 대한 OECD 통계국의 판단을 존중
- 따라서 동 통계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작성되었으므로 공표가 가능하다고 판단

(한국은행)

- Basically, we agree with the judgement of OECD Statistics Directorate in the macroeconomic statistics.
- Therefore, its declassification would be possible because it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ACS 1: 러시아의 OECD 가입후보국 지위에 따른 통계시스템과 통계에 관한 검토 중간보고서

주요 논점

- ◇ OECD 가입 후보국들에 대한 검토 과정 제시
- ◇ 러시아 연방의 자료에 대해 부분별 품질과 비교가능성 평가 결과를 상세히 기술함

□ 러시아의 가입 검토 절차에 따른 통계 검토

- 러시아의 OECD가입을 위한 로드맵에서 이사회(Council)는 CSTAT에 러시아의 통계관련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의 점검, 데이터의 비교가능성 및 품질 평가 등을 수행을 요청

□ 중간 검토 및 추후 단계들

- 각 도메인에서 품질, 비교가능성, OECD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위한 자료 제공 역량 측정을 위한 기본 기준은 “포괄범위”와 “준수”이며, 자료제공 역량과 관련하여, 개념과 방법론을 설명하는 최신 메타자료의 제공 능력이 중요시됨
- 사무국은 2012년 4월 CSTAT 검토를 위해 제공될 자료가 가장 최근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도메인의 데이터 및 메타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러시아 통계시스템에 대한 peer review는 회원국 및 사무국출신 전문가로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최종 검토안에 반영될 예정임

□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

- 2007년 러시아는 OECD 회원국과 유사한 종합적인 통계법을 제정하여 공식통계회계에 관한 국가 정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가통계시스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성함
- 금융통계, 무역통계, 국제 분류의 실행 등에는 통계시스템의 업무 조정 능력에 개선이 필요함

□ 통계 데이터의 품질 및 비교가능성

- 국민계정: 준수, 포괄범위 및 시의성, 물가/규모 측정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 국제표준 및 OECD의 요구 충족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고용 조사의 조사단위와 분류는 사업체인데 국민계정 조사단위와 분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산업별 고용자료와 산업별 부가가치 추계의 호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인구통계: 아직 수집되지 않았으며 러시아와 사무국 간의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의 교환이 2011년 하반기에 시작되어 동 통계평가는 다음 검토기간에 반영될 예정임
- 사업체등록자료(business register): Rosstat은 연방세금시스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기업에 대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기업 수준에서의 Business Register를 유지하고 있고, 2011년 ISIC Rev.4/NACE Rev.2의 신버전으로 동 Register를 전환할 계획임. 사무국은 동 사업체등록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계획임
- 사업체 통계
 - 2008년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통계(BSC)의 시의성은 만족스러우나 기업체 생멸통계 미제공 및 영문 자료제공관련 캘린더의 부재로 향후 SDBS* 자료 시의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SDBS: Structural and Demographic Business Statistics
 - 산업 및 서비스업 구조통계와 종사자규모별 사업체 통계의 포괄범위 및 준수사항은 OECD의 요구조건을 부분적으로 충족하나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Rosstat의 의지가 확고하며 추후 추가 자료가 기대됨. 개선 계획 및 일정은 최종 검토에 반영될 예정임
- 금융통계: 사무국은 1)금융계정 및 대차대조표, 2)가계 자산, 3)제도 부문 투자자산, 4)은행 수익성, 5)중앙정부부채 등 다섯 가지의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필수 데이터와 메타데이터 제출 필요
- 재화와 서비스 국제무역: 범위, 준수성, 시의성의 측면에서 OECD의 최소 필수사항은 충족하나 추가 개선사항에 대해 사무국과 Rosstat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상품교역통계는 요구되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협의를 계속할 계획임

- 국제수지: 데이터 제공 품질 등에서 필수사항을 충족했으며 OECD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어 정기적으로 배포
- 물가통계: CPI와 PPI에 관한 조사에서는 두 지표의 실행가능성, 세부 방법론적 정보 제공 등의 추가 고려사항이 제기
- 노동통계: 러시아의 단기 노동통계의 시의성은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우나 현재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음
- 생산 및 수요 지표: 시의성은 충족되나 지표 편집을 위한 계획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제기됨
- 단기금융통계: 러시아의 주요경제지표에 대한 단기 금융통계는 OECD의 필수사항을 충족
- 사업경향 및 소비자의견조사: 이메일과 엑셀파일을 통해 정기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으며 영어로 된 정보제공이 제한됨

#7 : 주관적 웰빙 측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주요 논점

- ◇ 웰빙 측정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됨
- ◇ 가이드라인 초안의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코멘트 요청

□ 목적 및 배경

-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수립 프로젝트는 CSTAT 2011-12년 사업 및 예산프로그램 내 “Quality of Life Indicators”의 중간결과이며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관련 결과(6.2.1.4)의 일환으로 실시된 사업임
 - ”웰빙 및 사회발전 측정“과 관련 통계국의 주요사업은 ”How's Life?“ 발간임
- 공식자료의 비교가능성 및 가용성 차이로 인해 ”How's Life?“에 수록된 많은 자료 중 몇몇의 차원은 비공식 자료가 사용되었음. 그 중 하나가 주관적 웰빙 차원이며 향후 비공식 자료를 공식자료로 대체하기 위해 주관적 웰빙 측정 가이드라인 제안됨

□ 이론적 근거

- 주관적 웰빙 혹은 행복의 개념은 과거와 달리 조사가능하며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인지되고 있으며 영국, Eurostat,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가 조사에 포함하고 있는 추세임
- 그러나 자료 수집을 위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표준 및 프로토콜의 부재로 비교가능성을 지닌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주관적 웰빙 측정의 특성상 질문지의 단어 및 문구에 의해 비교가능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주관적 웰빙 측정

- 주관적 웰빙은 세 가지 요소: 'life evaluation',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로 구분되며, 동 요소가 반영된 조사의 경우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으며 검사-재검사방법의 상관계수 또한 좋음

□ 프로젝트 범위 및 가이드라인

- 프로젝트의 목적은 국가통계기관, 기타 자료생산자 및 사용자에게 의해 표준으로 인지되어질 수 있는 주관적 웰빙의 측정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준비임
- 가이드라인은 주관적 웰빙 측정의 'how', 'what', 'when'관련 측면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의 중요성 및 주관적 웰빙의 각 차원들이 타당하고 신뢰성 있게 측정되어질 수 있음을 포괄할 예정임
- 주관적 웰빙 측정의 근본적 가치는 단독의 국가 종합표(aggregate) 발간뿐만 아니라 개별적 수준에서 기타 관련요소들에 따라 주관적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며 본 가이드라인은 수집되어질 주관적 웰빙의 범위뿐만 아니라 주관적 웰빙의 결정요인(determinants)들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다른 측정요소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프로젝트 현황 및 시간프레임

- 프로젝트의 주요 결과물은 웰빙의 EU-SILC 모듈 포함, 웰빙 측정관련 US 국립 과학 아카데미와의 공동 워크숍, 웰빙 측정관련 보고서, 주관적 웰빙 측정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웰빙에 대한 일반적 프로토타입의 질문모듈의 초안이 개발되었고, 동 모듈은 각 국의 통계기관들이 비교 평가를 위한 틀로 사용가능하게 제공 될 것이며 ONS 프로젝트 경험을 감안하여 2012년 초에 개정될 계획임
- OECD와 US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워크숍이 금년 6월 개최되어 제안된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이루는 주요 측정요소들을 정의할 예정임
- 가이드라인초안은 금년 12월에 완료되어 CSTAT 회원국에 회람될 예정임. 최종안은 2012년 4월 회의에 CSTAT에 제출될 계획임

(연구기획실)

□ 주관적 웰빙 측정의 필요성에 공감

- 주관적 웰빙 측정에 대한 기존 국가통계청의 심리적 저항감을 넘어, 웰빙 측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유용성이 있다는 주장에 공감함
 - 특히, EU-SILC와 ONS 프로젝트를 통한 보완으로 신뢰할만한 주관적 웰빙 측정의 국제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한국도 2012년에 “한국의 사회지표” 개편을 계획하고 있어, 본 프로젝트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임

□ 독자적 영역으로서의 주관적 웰빙 측정과 함께 ‘삶의 질’ 및 Material Living Condition에 설정된 개별 영역에서도 주관적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함

- OECD Measuring Well-Being의 Framework에서 주관적 웰빙은 ‘삶의 질’ 내의 독자적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개별영역(예, 환경영역에서 주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에 포함된 주관적 측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필요함

(연구기획실)

- Statistics Korea endorses the emerging view that subjective well-being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wellbeing and social progress, and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framework of the measurement of wellbeing.
- We also share the view that subjective well-being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makers, and therefore, new guidelines that the Secretariat is developing will be very helpful to us.
 - Statistics Korea will be very happy to apply the guidelines in the next round of the social indicators report and social survey implementation scheduled for next year and beyond.
- In this contex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on subjective dimension might need to expand to other areas, such as material living condition and environmental quality.

#8 : 가계소득, 소비 및 부에 관한 미시통계와 국민계정체계내의 불균형에 관한 두 전문가그룹 활동 진행상황

주요 논점

- ◇ 전문가그룹이 지향하는 바가 포괄범위 등에서 적절한지 여부
- ◇ 전문가그룹에 대한 CSTAT의 역할 정도
- ◇ 전문가그룹의 최종결과가 국제기구로부터의 관심을 받고 국제통계로 수용될 가능성에 대한 토론 필요

□ 전문가 그룹 개요

1. 목적

- 가계자산통계의 개념, 정의, 범위, 분류 등에 관한 국제기준과 표본, 조사, 집계, 추정, 분석, 공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구축
- 가계 소득, 소비 및 자산 미시통계의 통합체계 구축
 - 소득, 소비 및 자산 미시통계의 통합 조사, 분석, 공표 가이드라인과 동 분포통계의 조사방안에 대한 권고안 작성

2. 주관 및 참가국

- 주관: OECD 통계위원회
- 참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 18개 국가 통계기관과 OECD, Eurostat, 유럽중앙은행, Luxemburg Wealth Study 등

3. 활동기간

- 전문가그룹 구성: 2010년 11월
- 활동기간: 2011년~2012년말

□ 그룹활동 실적 및 향후 계획

- 전문가그룹 구성: 2010년 11월
- 제1차 대면 회의
 - 일시 및 장소: 2011. 3. 23-25. OECD 본부(파리)
 - 회의 내용
 - .가계자산통계의 조사, 연구 등에 관한 경험 공유
 - .가계자산통계의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 구축 내용, 일정 등 계획 결정
 - .가계 소득, 소비 및 지출 통계의 통합체계에 관한 경험 공유
 - *우리나라의 가구 일반패널 구축계획(가계금융조사결과 포함) 발표
 - .가계 소득, 소비 및 지출 통계의 통합체계 구축계획 결정 등
 -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연구과제 할당
- 가계자산부채조사 메타정보 수집: 2011년 6월
- 전문가 그룹별 할당과제 논의 및 보고서 작성 : ~2011년 12월
- 제2차 대면회의: 2011. 12월
 - 전문가 그룹별 할당과제 논의결과를 반영한 부문별 보고서(안) 승인
- 제3차 대면회의: 2012년 8월
 - 쟁점과제 마무리 및 최종 보고서(안) 작성

□ 주요 추진업무

- 미시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회원국간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편제방법 관련 지식 공유
- 국민계정 가계부문 통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가계경제 관련 미·거시 통계간 차이 및 데이터 연결에 대한 설명
- 국민계정 가계부문 편제 시 미시 데이터 정보의 보다 나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국민계정 가계부문내 분배적 측면의 구현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포럼 형성
- 국민계정 가계부문의 불균형(disparities) 측정을 위한 공통의 방법론 도출
- 국민계정체계와 정합성을 갖는 가계부문 불균형 지표의 개발

참고 「국민계정 차원의 가계집단 간 불균형 측정」 전문가그룹연황

□ EGDNA 개요

- (목적) 가계자원(소득, 소비 및 자산) 관련 미시·거시통계의 정합적 연계 및 이에 근거한 국민계정 차원의 가계집단 간 불균형 측정

- * OECD 통계위원회의 그룹 결성 승인 후(2010.6월) 각국에 동 그룹 참여 요청 (그룹 참여국은 총 21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통계청과 한국은행 참가)

○ (진행상황)

- 제1차 회의를 통하여 그룹의 목표, 작업계획 및 추진일정 등 합의 (2011.3월)

- * EGDNA 작업계획 및 추진일정

- ① 각국의 가계자원 관련 미시·거시통계 작성현황 등 정보 축적: 2011.1월~12월

- ② 가계계정 세분 및 국민계정 차원의 불균형 지표 개발: 2011.11월~2012.12월

- 각국의 가계자원 관련 미시·거시통계 작성현황과 미시·거시자료 비교 및 차이요인 파악 등을 위한 조사표 작성 및 제출 요청(2011.5월)

- * 조사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미시파트는 통계청 작성, 거시파트는 한은 작성, 미시·거시 연계파트는 통계청과 한은의 공동작업 필요

- ※ 한국은행 담당자와는 6월 중순 이후 공동 대응방안 본격 논의 합의

□ 우리 청 활동계획

- (기본원칙) 우리나라의 가계자원 관련 미시·거시통계의 정합성 제고는 물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분배지표의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동 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계획

○ (향후계획)

- EGDNA 조사표 작성 및 제출(통계청·한국은행 공동): 2011.7월

- * 미시파트 작성(7월 초순), 미시·거시파트 통합(7월 중순), 작성 결과에 대한 상호검토 및 수정·보완을 거쳐 최종 제출(7월 말)

- 제2차 회의 의제 검토 및 의견 제출: 2011.12월(예정)

- 제3차 회의 의제 검토 및 의견 제출: 2012.6월(예정)

(한국은행)

- 현재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참여 중(통계청(지역경제통계과) 어운선 서기관과 한국은행(국민소득총괄팀) 김영태 차장)
 - 이 전문가그룹의 목적인 가계부문 세부그룹별 통계 확충, 미.거시 통계간 정합성 개선 등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분석에도 매우 중요한 과제를 감안하여 동 그룹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방침
 - 지난 5.17일 OECD로부터 받은 가계부문의 미시 및 거시 기초통계 제공*과 관련된 이메일을 받고 검토하며 제출을 준비 중
- * Questionnaire on micro and macro data sources on households
- CSTAT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후원으로 동 전문가그룹의 결과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희망

Comments Progress Report on Activities of Two Expert Groups

(한국은행)

- The ROK is participating in these EGs (two experts from the NSO and the BOK)
- The aim of these EGs is suitable in terms of the nation's economic situation, therefore we will fully contribute to the activities the EGs.
 - We are preparing the questionnaire on micro and macro statistics on households which the OECD sent to us via e-mail on May 17.
- The ongoing support of CSTAT for the Expert Groups is necessary for the success of these EGs. Other international bodies' attention will be helpful for the output of EGs, which, in turn, will lead the output to have a status as international statistical standards.

(복지통계과)

- 한국 통계청은 가계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 건전성 파악을 위하여, 2010년부터 1년 주기로 1만 가구 표본규모의 가계 금융조사 실시
 - 현재 제 2차년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금년 말 이전에 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
- 한편, 소득, 지출 및 자산을 함께 조사하는 2만 가구 규모의 “가계 금융 및 복지조사”를 2012년부터 연간주기로 실시 예정
 - 가계금융조사는 이 조사의 하위 샘플로 통합
 - 이 조사에서는 소득, 소비 및 자산이 동시에 조사되어, 이러한 가계의 경제적 자원의 종합적 분포상태를 측정 가능
- 한국 통계청과 OECD 전문가그룹의 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공유하면 상호 도움이 될 것임

(복지통계과)

- Statistics Korea started to conduct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from 2010 which is an annual survey of one hundred sample households. The second wave of the survey is being conducted and the results will be released by the end of this year.

- Also Statistics Korea has a plan for a "Survey of Household Finance and Living Conditions" which will be conducted annually from 2012. The sample size of the survey will be two hundred households.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will be integrated into this survey.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wealth will be collected via this single survey tool. Therefore, the joint distributions of the household economic resources can be measured using the survey results.

- The sharing of experiences and study results among the Expert Groups and Statistics Korea will be mutually helpful.

#9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

주요 논점

- ◇ 국가통계국들이 직면하고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접근관련 문제 제시
- ◇ OECD의 액세스 증진 노력과 전문가그룹 설립에 관한 설명

□ 개요

- OECD는 마이크로데이터로의 국제적 액세스 증진 시도를 해 왔으며 이는 노동력 조사로의 액세스, 회사등록(business register) 및 데이터 웨어하우스로의 액세스, 제도적 및 기술적 인프라 설립으로 요약됨

□ 마이크로데이터에 기초해 조화된 노동력 및 이민통계

- 경제 및 사회통계 분석은 세분화된(disaggregated) 데이터에 대한 초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비롯한 여러 국제 이니셔티브가 이 변화를 증명함
- NSO의 관점에서 가계 마이크로데이터로의 액세스와 배포는 기밀성과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며, 권한을 가진 사용자들에게 이용 가능 하면서도 우수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함
- 2010년 통계사무국(Statistics Directorate)은 MacArthur 기금으로 국가 노동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풀 액세스를 허용하는 원격 액세스 시스템 제공의 유용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함
- 보고서는 2010년 11년 완성되었으며 업무를 제공하는 시설 설립을 위해서는 역량 시험 등 많은 업무가 수반되어야 함을 밝힘
- SDC*는 정보누출을 수용가능한 범위까지로 최소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셋으로써 아직 국제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고 실효성이 평가되지 않음. OECD 통계사무국은 SDC 방법 개발을 위한 업무를 제안하고 MacArthur 기금도 실행단계에서의 지원에 흥미를 보임

*SDC: Statistical Disclosure Control (통계정보누출통제)

□ 사업통계 및 개인사업 마이크로데이터에 기초한 기업가정신
지수 (entrepreneurship indicators)

- 유럽커미션은 기업가정신 지수 중 하나인 “혁신적 고성장 회사 (innovative high growth firms)”를 EU2020전략을 위해 헤드라인지수로써 선택하고 모니터 할 것임
- OECD와 Eurostat은 이 새로운 헤드라인지수에 대한 심층 평가 업무를 진행 중이며 사업 등록기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한 분산적 (decentralized) 접근방식을 선택함
- 동시에 OECD는 전 세계의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인 ORBIS를 획득하여 신뢰불가능한(unreliable) 데이터의 체크 및 누락 데이터 측정 등을 수행함

□ 마이크로데이터 액세스에 관한 국제적 공동작업을 위한 OECD
전문가그룹

- 마이크로데이터로의 국제적 액세스 공동작업의 잠재력을 논의하기 위한 두 번의 워크숍이 ABS 이니셔티브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열림
- 두 번째 워크숍 후 호주, 캐나다, 독일 등의 자문국은 전문가 그룹 형성은 영구적 기반을 마련하고 더 가시화시킨다는 점에서 효율성을 증진 시킬 거라 진단함
- 그룹은 LFS 및 사업등록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마이크로데이터로의 액세스 제공을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 가능할 것임

□ CSTAT 회원들을 위한 질의사항

- 제안된 위임사항(Terms of Reference)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마이크로 데이터 액세스에 관한 전문가그룹 창설을 승인할지를 의견제시할 것

(고용통계과)

□ 검토사항

- 마이크로데이터 접근에 관한 OECD통계위원회(CSTAT) 전문가 그룹 설립에 관한 회원국의 승인 여부

1. CSTAT members should indicate whether they approve the creation of an Expert Group on access to microdata that would work according to the proposed Terms of Reference.

□ 검토범위

- Expert Group 설립에 대한 의견과 microdata 제공 등은 우리청 소관 통계 전반에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용통계과가 아닌 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 다만, 동 그룹의 활동과 관련, 향후 우리청 경찰조사 microdata 제공을 시범적으로 요구할 가능성
 - 그 제공의 한계와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경찰조사 microdata의 OECD 제공에 따른 한계점

-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32,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별(취업.실업.비경제활동) 규모와 분포 등을 파악한 후,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제공 중
 - 또한, microdata를 통한 이용자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및 원격접근시스템(Remote Access System) 등을 통해 제공 중
 - 그러나, 현재 표본 규모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다양한 교차표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 연구자에게 원자료 제공 시 상대 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nce)를 고려하여 활용하도록 권고

○ (한계점)

-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위해, 상대표준오차 등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양한 교차표를 이용한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가능성
- 통계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공표되지 않는 경찰자료가 국제적으로는 사실상 공표되는 문제점 발생 우려
- 국내 언론 등에서 동 자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용·해석하여 보도하는 경우, 자료오용으로 인한 악영향 예상
 - ※ OECD는 국내 (민간)연구자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분석결과의 국제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

○ (대응 방안) OECD Expert Group은 고용통계 microdata의 국제적 제공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바, 청 차원에서 동 사업의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

- OECD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자료제공의 한계점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해결책 마련이 우선 필요
 - ※ 상대표준오차에 따른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비밀보호 노출 위험성, 자료 오용 방지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원격접근시스템(Remote Access System) 활용에 대해 제안 필요
- 향후, 다른 국가들의 제공방법 및 범위와 OECD 추진결과 등을 모니터링 한 후, OECD의 경찰자료 제공여부나 제공범위 등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 ※ 참고사항 : 통계자료 이용관련 통계법령 규정

통계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47조(통계자료이용자의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통계법 제31조에 따라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에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

#10 : 가계의 비시장서비스 생산 추계를 물질적 웰빙관련 국제비교에 통합하기

[Incorporating Estimates of Household Production of Non-Market Services Into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Material Well-Being]

주요 논점

- 본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가계생산가치 측정의 기초자료로서의 생활시간자료 부문을 검토
 - 비시장서비스 부문인 가계의 생산 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활용되고 있으며(무급노동 부문) 또한 웰빙 등 삶의 질을 측정하는 기초자료로 생활시간조사 자료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임

□ 검토사항

- OECD 분류 5개 카테고리 기준 행동분류별 평균사용시간 및 구성비(7~8쪽)
 - 대체로 수치는 큰 차이 없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자료 입수 경로 및 행동분류 그룹핑 시 한국행동분류체계와의 매칭상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봄)
- 무급노동 영역별 평균사용시간 및 구성비(9쪽, 15~16쪽)
 - 무급노동 분야 한국이 2시간 대로 가장 낮은 시간량을 보이고 있음. 수치 확인 결과 이상 없음. 단, 국가별 조사대상 연령이 다를 것이므로 조사연령 고려 필요
- .대부분 국가는 15세 이상 대상 조사하며, 10세이상으로도 조사하고 있는 경우 있음(한국의 자료는 10세 이상 조사자료임). 따라서 분석시 기준 연령이 무엇인지 함께 고려되어야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음
- 평균사용시간 및 구성비, 주요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실시현황 비교 참고
 - <붙임> 참조

□ 제안

- 생활시간사용 형태의 정확한 국제비교를 위하여 표준화된 행동분류체계 필요
 - 자료의 정확한 비교 및 이해를 위한 각 국가별 메타정보 제공 필요
 - 가급적 공식 통계생산기관을 통한 자료 이용을 권하며 부득이 자료 인용 시 원출처 또는 자료입수 경로 표기 필요
 - KOSIS 서비스 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재가공하였는지 또는 기타 다른 경로로 자료를 제공받았는지의 여부 등
 - .OECD 기준 행동분류별로 자료를 재가공시 OECD 기준 행동분류와 한국 행동분류 매칭정보가 어떠한지 파악이 필요함
- ※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는 국내 통계포털사이트(KOSIS)뿐만아니라 영문 KOSIS에서도 일부 자료 서비스하고 있음

참 고

행동분류별 평균사용시간 및 구성비

(시간:분)

5 main activity categories by the OECD	해당 한국분류	10세이상 요일평균 시간(주행동시간)		퍼센트
paid work or study	대분류 2. 일 대분류 3. 학습 중분류 82. 출퇴근 및 일관련 이동 중분류 83.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3:15 1:15 0:42 0:12	324분	22.5
unpaid work	대분류 4,5,6 중분류 84, 85, 86	2:08	128분	8.9
personal care	대분류 1. 개인유지 중분류 81. 개인유지관련 이동	10:53 0:09	662분	45.9
leisure	대분류 7. 교제 및 여가활동 중분류 87. 여가활동관련 이동	4:42 0:27	309분	21.4
other activities	대분류 9. 기타 중분류 80, 89	0:17 0:01	18분	1.2
total		24:00	1441분	100.0

주) OECD 기준에서는 대분류 6. 봉사참여활동을 무급노동으로 구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여가시간에 포함하기도 함(한국 통계청의 경우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보도함)

무급노동 영역별 평균사용시간 및 구성비

(시간:분)

unpaid work	해당 한국분류	10세이상 요일평균 시간(주행동시간)	퍼센트
routine housework	대분류 4. 가정관리(중분류 45 제외)	1:18	60.9
shopping	중분류 45.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0:09	7.0
care for household members	대분류 5. 가족보살피기	0:25	19.5
care for non household members	대분류 6. 참여 및 봉사활동	0:02	1.6
volunteer work			
travel related to household activities	중분류 84.가정관리관련이동	0:08	6.3
	중분류 85. 가족보살피기관련 이동	0:05	3.9
	중분류 86.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이동	0:01	0.8
unpaid work total		2:08	100.0

※ 「2009년 한국 생활시간조사」 행동분류체계- 대분류 9개, 중분류 50개, 소분류 144개

000	전체	Total
1	개인유지	1 PERSONAL CARE ACTIVITIES
11	수면	11 Sleeping
111	수면	111 Sleeping
112	낮잠, 졸음	112 Nap
12	식사 및 간식	12 Eating/drinking
121	가족과의 식사	121 Eating a meal with family
122	혼자 식사	122 Eating alone
123	가족외 사람과의 식사	123 Eating a meal with other persons
124	간식과 음료	124 Eating a snack or drinking a non-alcoholic beverage
13	개인관리	13 Personal hygiene
131	개인위생	131 Personal hygiene (ex. Washing, showering, shaving, using the toilet, etc.)
132	옷갈아입기, 외모관리	132 Dressing, make-up (ex. Getting ready to go out, skin, hair preparations, etc.)
133	이미용관련 서비스 받기	133 Purchasing personal care services
14	건강관리(의료적)	14 Health care
141	자가치료	141 Personal medical care
142	의료서비스 받기	142 Purchasing medical care service
143	아파서 쉬	143 Rest because of illness
19	기타 개인유지	19 Personal care activity n.e.c
199	기타개인유지	199 Personal care activity n.e.c
2	일	2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21 Employed work/Self-employed work
211	주업	211 Main job
212	부업	212 Other jobs
213	일 중 휴식	213 Breaks
214	일관련 연수	214 Training
215	집에 가져와서 일함	215 Work brought home
216	그외 일관련 행동	216 Employed work/Self-employed work n.e.c.
22	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제외)	22 Unpaid work in family business
220	무급가족 종사일(농림어업제외)	220 Unpaid work in family business
23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23 Unpaid work on family farm
230	농림어업의 무급가족 종사일	230 Unpaid work on family farm
24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4 Unpaid work in family garden
240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일	240 Unpaid work in family garden (ex. Gathering nuts, mushrooms, not for sale)
25	구직활동	25 Job seeking
250	구직활동	250 Job seeking
26	일관련 물품구입	26 Purchasing employment related goods
261	일관련 집적쇼핑	261 Purchasing employment related goods, through off-line(visiting store)
262	일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262 Purchasing employment related goods, through on-line(Internet, TV home shopping , etc)
29	기타 일관련 행동	29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n.e.c
299	기타 일관련 행동	299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n.e.c
3	학습	3 EDUCATION ACTIVITIES
31	학생의 정규수업	31 School/University
311	수업	311 Classes and lectures
312	정규수업사이의 휴식	312 Breaks
313	학교에서의 스스로 학습	313 Self study at school (ex. Self study before, after or between classes)
314	학교행사	314 School/University events during class time (ex. School excursion, Field day)
319	학교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	319 School/University activities n.e.c
32	학생의 정규수업외 학습	32 Informal education
321	정규수업외 수강	321 Study at informal institutions
322	학교외에서의 스스로 학습	322 Homework
329	학교외에서의 기타 학습관련 행동	329 Informal education n.e.c.
33	학습관련 물품구입	33 Purchasing education related goods

000	전체	Total
331	학습관련 집적쇼핑	331 Purchasing education related goods, through off-line(visiting store)
332	학습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332 Purchasing education related goods, through on-line(Internet, TV home shopping , etc)
4	가정관리	4 DOMESTIC ACTIVITIES
41	음식준비 및 정리	41 Food preparation/cleanup
411	식사준비	411 Cooking meals, setting table
412	설거지, 식후정리	412 Clearing table, washing dishes
413	간식 및 비일상적 음식 만들기(저장식품 등)	413 Preparing food for later use
42	의류관리	42 Laundry and clothes care
421	세탁 및 세탁물 널기	421 Washing and hanging
422	옷 정리(세탁물 걷기, 옷장정리 등)	422 Folding and putting clothes into/from the wardrobe
423	다림질, 바느질, 의류손질	423 Ironing/care of clothes and shoes
424	의류수선, 세탁 서비스 받기	424 Purchasing clothes care services
425	재봉, 뜨개질	425 Clothes making
43	청소 및 정리	43 Cleaning dwelling and arrangements
431	방·물품 정리	431 Arranging and tidying items inside the house
432	집안 청소(쓸기, 닦기)	432 Cleaning dwelling (ex. Dusting, vacuuming, washing floors, etc.)
433	그외 청소 및 정리	433 Cleaning yard, veranda, garage (ex. cleaning windows, packing for a trip)
44	집 관리	44 Household upkeep
441	가재도구 · 집 직접 손질하기	441 Home/equipment repairs
442	세차, 차량 직접 관리하기	442 Vehicle maintenance
443	그외 집 직접 관리하기	443 Other home maintenance (ex. Disinfecting the house, tending plants/pets)
444	가재도구 · 집 손질 관련 서비스받기	444 Purchasing Home/equipment repairs services
445	세차, 차량 관련 서비스받기	445 Purchasing Vehicle maintenance services
446	그외 집 관련 서비스받기	446 Purchasing Other home maintenance services(ex. Disinfecting the house, tending plants/pets)
45	가정관리 관련 물품구입	45 Purchasing domestic goods
451	생활용품 관련 직접쇼핑	451 Purchasing daily necessities/groceries, through off-line(visiting store)
452	내구재 관련(생활용품 제외) 직접쇼핑	452 Purchasing durable consumer goods, through off-line(visiting store)
453	생활용품 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453 Purchasing daily necessities/groceries, through on-line(Internet, TV home shopping , etc)
454	내구재 관련(생활용품 제외)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454 Purchasing durable consumer goods, through on-line(Internet, TV home shopping , etc)
46	가정경영	46 Household management
461	가계부 정리	461 Keeping household accounts
462	가정계획	462 Planning and arranging, budgeting
463	은행 및 관공서 일 보기	463 Administrative service(Visiting bank, municipal authorities, post office, etc.)
49	기타 가사일	49 Domestic activities n.e.c
499	기타 가사일	499 Domestic activities n.e.c
5	가족 보살피기	5 FAMILY CARE
51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 Preschool child care
511	신체적 돌보기(씻이기, 먹이기, 재우기 등)	511 Physical care of preschool children
512	공부 봐주기, 책 읽어주기	512 Reading
513	놀아주기	513 playing
514	미취학 아이 간호	514 Nursing
519	기타 미취학 아이 보살피기	519 Preschool child care n.e.c
52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 School child care
521	씻이기, 등·하교 도와주기	521 Physical care of school children (ex. Preparing children for school.)
522	숙제 및 공부 봐주기	522 Teaching the child (ex. Helping with homework, guiding and playing, etc.)
523	선생님과 상담 및 학교방문	523 Visiting school (ex. Attending parent-teacher meetings, etc.)
524	초·중·고등학생 간호	524 Nursing

000	전체	Total
529	기타 초·중·고등학생 보살피기	529 School child care n.e.c
53	배우자 보살피기	53 Spouse care
531	배우자 간호	531 Nursing
539	기타 배우자 보살피기	539 Spouse care n.e.c
54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4 Parents care
541	부모 및 조부모 간호	541 Nursing
549	기타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49 Parents care n.e.c
55	그외 가족 보살피기	55 Family care n.e.c(ex. Relatives care)
551	그외 가족 간호	551 Nursing
559	기타 그외 가족 보살피기	559 Family care n.e.c
6	참여 및 봉사활동	6 VOLUNTARY WORK AND COMMUNITY PARTICIPATION
61	이웃 및 친분이 있는 사람 돕기	61 Helping/doing favors for friends, neighbors (ex. Except for family)
611	소득이 있는 활동 돕기	611 Helping Employment related activities
612	가사활동 돕기	612 Helping Domestic activities
619	기타 일 돕기	613 Helping/doing favors n.e.c
62	참여활동	62 Community participation
621	의무적 참여활동	621 Civic obligations, ceremonies
622	자발적 참여활동	621 Voluntary community participation
63	자원봉사	63 Unpaid voluntary work
631	국가 및 지역 행사 관련	631 Voluntary work for national or local events
632	자녀교육 관련	632 Voluntary work for school or kindergarten children
63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관련	633 Voluntary work for the handicapped or the aged, etc.
634	재해 주민돕기 및 시설복구 관련	634 Rural communities, natural disaster relief activities
639	기타 자원봉사(헌혈, 무료상담 등)	639 Unpaid voluntary work n.e.c
7	교제 및 여가활동	7 SOCIAL LIFE / RECREATION AND LEISURE
71	교제활동	71 Social activities
711	전화를 이용한 교제(문자메시지 포함)	711 Telephone conversations
712	가족·친척과의 교제	712 Social activities and conversations with members of the family, relatives
713	그외 사람들과의 교제	713 Social activities and conversations with friends, neighbors
714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채팅, 이메일 등)	714 Social activities using Internet (internet chatting, e-mail)
715	성묘, 벌초	715 Visiting a family grave/cutting the weeds around a grave
719	기타 교제관련 행동	719 Social activity n.e.c
72	일반인의 학습	72 Attendance of free-time courses for adults
721	외국어 관련 학습	721 Language
722	컴퓨터 관련 학습	722 Computer related
723	자격증, 취업 관련 학습(기능, 기술 등)	723 Courses for a qualifying examination/employment examination
724	취미 관련 학습	724 Hobby related
729	기타 일반인의 학습	729 Attendance at free time study and courses n.e.c
73	미디어 이용	73 Mass media
731	신문	731 Reading newspapers
732	잡지	732 Reading magazines
733	TV	733 Watching TV
734	비디오, DVD, PMP, DMB	734 Video, DVD, PMP, DMB
735	라디오	735 Listening to radio
736	CD, Tape, Mp3 등	736 Listening to records/CDs/Tapes/MP3
737	인터넷 정보검색(무선인터넷 포함)	737 Accessing internet
738	인터넷 기타(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관리, 영화 등)	738 Accessing internet n.e.c(Blog an Personal Homepage management, etc)
74	종교활동	74 Religious activities
741	개인적 종교 활동	741 Activities practiced alone or with family(ex. Praying, reading bible at home)
742	종교 집회·모임 참가	742 Religious services (ex. Visiting church, temple for worship, etc.)
743	그외 종교 관련 행동	743 Religious activities n.e.c

000	전체	Total
75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	75 Entertainment (as spectator)
751	영화(극장, 비디오방)	751 Movies/cinema (ex. Watching a movie at a cinema, not home)
752	연극, 콘서트	752 Concert/theatre
753	전시회, 박물관	753 Museum/exhibition
754	스포츠 경기 관람	754 Sports event
755	기타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관련 행동	759 Entertainment (as spectator) n.e.c
76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활동	76 Sport and outdoor activities
761	걷기, 산책	761 Walking
762	등산, 하이킹	762 Climbing/Hiking
763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 운동	763 Exercise for personal fitness (ex. Aerobics, yoga, swimming, etc.)
764	그외의 단체 스포츠	764 Other sports (ex. football, badminton, bowling, surfing, etc.)
765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765 Driving/Sightseeing (ex. Driving for pleasure, looking at views, etc.)
766	그외 집밖의 레저활동	766 Outdoor activities n.e.c(ex. Fishing, camping, visiting an amusement park)
77	취미 및 그외 여가활동	77 Hobbies, games and other leisure activities
771	독서	771 Reading books
772	컴퓨터 게임(휴대용 게임기 포함)	772 Computer games
773	놀이(바둑, 장기, 화투, 카드, 아이들놀이 등)	773 Playing/gambling (ex. Playing with toys, playing cards, etc.)
774	그외 취미활동	774 Hobbies/arts/crafts
775	유흥(술, 춤, 노래방)	775 Drinking alcohol/Singing at a commercial singing establishment
776	담배 피우기	776 Smoking
777	아무것도 안하고 쉬	777 Resting (ex. Doing nothing)
78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78 Purchasing Social life/ Recreation and Leisure related
781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직접쇼핑	781 Purchasing Social life/ Recreation and Leisure related, through off-line(visiting store)
782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무점포쇼핑(인터넷·TV홈쇼핑 등)	782 Purchasing Social life/ Recreation and Leisure related, through on-line(Internet, TV home shopping , etc)
7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79 Recreation and leisure n.e.c
799	기타 여가 관련 행동	799 Recreation and leisure n.e.c
8	이동	8 TRAVEL (by purpose)
81	개인유지 관련 이동	811 Personal care
811	개인유지 관련 이동	811 Personal care
82	출·퇴근 및 그외 일관련 이동	82 Commuting nad during work
821	출·퇴근	821 Commuting
822	그외 일 관련 이동	822 During work
83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83 Education
831	통학 및 학습관련 이동	831 Education
84	가정관리 관련 이동	84 Domestic activities
841	가정관리 관련 이동	841 Domestic activities
85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85Family care
851	가족 보살피기 관련 이동	851 Family care
86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86 Voluntary work and community participation
861	참여 및 봉사활동 관련 이동	861 Voluntary work and community participation
87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이동	87 Social activity
871	교제활동 관련 이동	871 Social activity
872	일반인의 학습 관련 이동	872 Attendance of free-time courses for adults
873	그외 여가활동 관련 이동	873 Recreation and leisure
89	기타 이동	89 Other purpose
891	기타 이동	891 Other purpose
8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80 Waiting for a bus, train, etc.
800	이동하기 위해 기다리기	800 Waiting for a bus, train, etc.
9	기타	9 OTHERS
919	생활시간조사 조사표 기입	919 Filling in time use diary
999	그외 기타	999 Others

※ 주요 국가별 생활시간조사 실시 현황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시작년도	1999년	2003년	1976년	1995년	1985년	1992년	1966년	1991년	1987년
최근조사	2009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5년	2006년	'09~'10	2001년	1997년
시간일지	2일	1일	2일	1일	1일	2일	2일	3일	1일
조사범위	10세이상	15세이상	10세이상	8세이상	15세이상	15세이상	11세이상 60세미만	10세이상	12세이상
조사방법	면접조사	CATI	면접조사	면접조사	CATI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면접조사
표본규모	8,100가구 (약21,000명)	약 12,250명	약80,000가구	약 5,000개 시간일지	약 19,597명	약3,870가구	14,000가구	약5,400가구	약 50,000명
조사주기	5년	매월조사 (연간발표)	5년	5년	5년	5년	약10년	10년	10년

#11 : SDMX 국제회의의 2011 보고서

주요 논점

- ◇ 제 3차 SDMX 국제회의에서 다루어진 지난 10년간의 SDMX 활동 및 성장 과정을 설명함
- ◇ 2011 국제조사의 결과 및 향후 방향을 제시

□ 성장하는 SDMX 커뮤니티

- 제 3차 SDMX 국제회의가 IMF와 세계은행의 공동 주관으로 2011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렸으며 그간의 활동, 사용 실행의 사례 소개 등 SDMX의 모든 부분을 다룸
- SDMX 사용자 조사는 통계기구들이 점차적으로 SDMX이니셔티브의 데이터 교환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인지함을 보여줌

□ SDMX- 10년의 성장

- SDMX의 10년간의 성과로는 웹서비스의 증가하는 수용, 워킹그룹 창설, 웹사이트 제작, UNSC의 선호되는 기준으로의 성장, 성장하는 SDMX 커뮤니티를 지지하기 위해 구성된 국제회의 등이 있음

□ SDMX 국제회의총회 (Plenary Session)

- SDMX의 국제 및 국내 기구들에 대한 비즈니스 사례 및 실행 액션, SDMX 친화적(compliant) 데이터 구조 정의 개발 방법, IT 툴 쇼케이스, 최근 뉴스 등을 다룸
- 2011년 5월 열린 역량개발 세션에서는 기술 및 내용 중심 측면이 다루어졌으며 정보 모델 및 웹서비스에 대한 개관이 제공됨. 데이터

혹은 메타데이터 정의 구축 방법의 단계별 설명자료(tutorial)가 제공됨

□ SDMX- 향후 방향

- SDMX 특정 도메인을 위한 국제적 데이터구조 정의의 강화, SDMX 내용중심(content-oriented) 가이드라인의 업데이트, 데이터 허브의 광범위 실행, SDMX 아웃리치 등이 SDMX 후원자들에 의해 제공됨

□ SDMX 국제조사 2011로부터의 결과

- 2011 SDMX 국제조사는 수용레벨 측정, 공식통계에서의 SDMX 실행 계획 등을 목적으로 하며 6개국으로부터의 124개의 기구가 응답함
- 실행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자료, 교육, 대상지원의 부족 등이 있으며 SDMX의 추가 마케팅에 대한 필요성 인지

의장단회의 의제 : 공식통계 신뢰 측정

검토의견

- ◇ 공식통계 신뢰측정에 대한 전자토론그룹(EDG)은 각국의 인지실험 결과와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조사표를 통계위에 제출예정
- ◇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회원국의 조언을 요청해옴

□ 그간의 진행상황

- CSTAT이 공식통계의 신뢰 측정을 위한 조사표(안)에 대해 인지 실험을 요청('10.4월), 이에 우리청은 인지실험 결과보고서를 CSTAT에 송부('10.5월)
- Ivan Fellegi(EDG 의장)가 수정된 조사표 초안을 각국에 공람('11.2월), 한국 등 6개국*과 Eurostat의 조사표 개선의견을 수렴('11.4월~)하였고 향후 최종 조사표를 CSTAT에 제출 예정

* 인지테스트 참여 6개국: 한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 Responses to the Draft Report

- 우리청은 Ivan Fellegi가 준비한 초안('11.2월)에 대해 몇 가지 개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11.4월)
 - 그 중 하나는 공식통계를 불신하는 이유를 묻는 문항 추가에 관한 의견이었음
 - 조사표 초안은 공식통계와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신뢰 및 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지만 원인분석을 위한 응답자의 경험이나 인식의 근거를 묻는 질문이 없음
 - 정치적 개입의 정도를 묻는 문항이 있으나 불신의 원인은 다른 데에 있을 수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비자의 체감정도와 차이를 보이는 경우로 지수가 정확하더라도 물가 변동성이 큰 경우 불신의 정도도 비례할 수 있음
- 왜 공식통계를 불신하는 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면 각 국가는 이에 적합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며
- 국제 비교를 감안해서도 국가별 신뢰 차이의 원인분석이 가능하다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신의 근거를 묻는 질문과 잘 구성된 선택지문이 제시되도록 해야 함

□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우리청의 제안

- (조사표 설계관련 이슈) 최종 조사표에 대하여 소규모 현장테스트 (field test)를 어느 국가가 할 지 정할 필요
 - 현장테스트는 한 개 국가가 먼저 시행한 후 이를 평가해 필요하면 한 개 국가가 더 참여할 수 도 있을 것임
- (조사 진행에 관한 이슈) 공식통계 신뢰측정 조사 시 조사수행 기관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통계청에서 할 지 또는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민간 리서치 기관에서 할지,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
- 또한 표본규모, 조사방법, 조사결과 리포팅 방법 등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 작성이 필요

□ Comments on the Draft Report

- KOSTAT has submitted a few suggestions on the draft by Mr. Ivan Fellegi.
 - One of the suggestions was to add a question to ask the reason behind the respondents' mistrust of official statistics.
 - The draft could measure degrees of trust and recognition in official statistics and statistical producing offices, but for cause analysis, there are no questions directed at the reason for the distrust.
 - Although there is a question that asks how much respondents feel politics could have been involved in the statistics, an additional question is necessary because the reason(s) of distrust may be discovered in other areas or fields.
 - For example, there might be a gap between the CPI and how customers actually feel about the price. If a large price volatility exists, there may be a relatively large degree of distrust from customers even though the CPI remains accurate.
 - Cause Analysis on reasons of distrust will also help governments to improve current conditions;
 - and more beneficial information will be obtained if the data on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can be internationally compared.
 - In conclusion, additional well-composed questionnaires should be provided to respondents that ask for the reason of their dis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Suggestions on future plans

- (On questionnaire design)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which country will take the field test with the final questionnaire form.
 - It is more efficient to decide on whether another country will take the field test, depending on the test result after one country conduct the field test and evaluate it.

- (On the survey proces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which office within the assigned nation will conduct the survey that measures trust in official statistics.
 - For example, both KOSTAT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can conduct the survey,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order to derive to best option between the two offices - i.e., private institutes can take a more objective position in the survey.

-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ed manual to provide sample sizes, survey methods and a reporting method of the survey results.

4. 제59차 유럽통계기관장 회의

1. 의제 1: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전략 개발을 위한 High-level 그룹의 비전 /
2. 의제 4: 지속가능 개발 측정에 관한 보고서 /
3. 의제 5: 공식통계의 2차 및 혼합자료(mixed sources): 유럽통계 회의 의장단의 심층검토 /
4. 의제 8: 교육통계 검토 /
5. 의제 12: 2009/2010 CES 의장단의 세 번째 회의 보고서 /
6. 의제 13: 2010/2011 CES 의장단의 첫 번째 회의 보고서 /
7. 의제 16: 2011/2012 및 2012/2013 기간동안의 회의를 위한 의장단 선출 /
8. 의제 30: 데이터수집 조직 및 국가통계기관들을 위한 공유/

의제 1 :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의 전략 개발을 위한 High-level 그룹의 비전

주요 논점

- ◇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고위레벨 그룹 (HLG-BAS)의 국제 이니셔티브를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

□ 개요

- 최근 사회에는 전통적 국가통계 사용자들에 비해 광범위한 통계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용을 위한 매커니즘은 부재함.
- 정보통신 분야(ICT)의 국제적 협력 업무에서 실질적 변화에 어려움이 있어 상급 전문가들의 변화주도 참여가 필요함.

□ 비전

- 국제적 상황에 맞는 양질의 통계산출과 최소비용으로 더 많은 유용성을 확보하는 생산방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략(strategy)을 정의함.
-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적인 차원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생산품 창출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와 데이터는 사회전체에서 이용 가능한 것 이어야 함.
- 개발에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통계 결과물을 국제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식통계정보의 생산은 그 자체의 산업 표준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새로운 통계생산물과 산업화 및 표준화로의 방향

- 업무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중점은 정보사회가 사업의 중요한 변화를 야기할 것이며 혁신적 업무를 위한 적극적 참여 조성이 중요함.
- 산업화 활동의 중점은 노동, 물질, 노력의 복재(duplication)로 정의되는 비용의 표준화이며 방법론의 표준화는 우수 해결책 수용을 의미함.

- 통계기구가 통계의 산업화 생산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념레벨 (conceptual level)에서 서로를 모색해야 함. GSBPM(Generic Statistical Business Process Model)의 현 버전은 발전을 위한 시작점이며,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의 전략개발을 위한 고위레벨 그룹 (HLG-BAS)은 개념 표준에 관한 개발을 적극 증진해야 함.
- 통계의 산업화에 의해 나타나는 증가 비용효과는 생산품디자인, 과정 디자인, 생산, 분석의 네 단계로 나뉨.
- 국제적 협력 이니셔티브에는 전체 산업화를 위한 노력의 기여에 대해 반드시 설명되어야 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른 조직 변화가 절실함.

□ 과제

- 변화를 위한 환경 조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산인 인적자원 증진을 위한 잠재력 모색 및 기업가정신 권장이 필요함. 또 다른 자산으로써의 공식자료에 관한 과제으로써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 창출을 위한 “비공식”과 “공식” 자료 간의 조화 추구가 이루어져야 함.
- 새로운 데이터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방법을 습득해야 하며, 혁신이 핵심 사업의 경영동력이 되어야 함.
- 효율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노동비용 없는 생산품질 획득 및 이익 관리가 필요함. 표준화는 목적 자체가 아닌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며, 과정의 표준화 및 경제적 최적조건 모색 방법을 습득해야 함.

□ 결론

- 통계기구는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이익(advantage)을 적응수용 및 창출 하고 상호 관련성 보유를 위해 협력해야 함.
- HLG-BAS 그룹은 올해 10/11월 모든 관련 그룹의 리더를 소집하여 실행에 초점을 맞춘 전략 문서를 위해 논의할 예정이며 앞서가는 통계 산업의 창출을 위해 이 비전 실행에 있어서의 참여를 모색.

의제 4: 지속가능 개발 측정에 관한 보고서

주요 논점

- ◇ TFSD(Task Force for Mea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의 방향과 과거 연구와의 차이점 등을 다룸.
- ◇ 지속가능한 개발지수(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SDI)를 다루는 보고서의 구성을 섹션 별로 설명함.

□ 개요

- 본 보고서는 통계국, 국제기구 및 공공 제공을 목적으로 측정이론에 기초하여 SDI를 제안함. 주로 방법론적 문제를 다루며 태스크포스는 공식통계의 품질 측정에 중점을 둠.
- 본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의 수요 충족 능력에 화합하지 않고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한다는 브룬틀랜드 (Brundtland) 커미션에 기초한 지속가능 개발의 정의를 따르며 기술적 차원의 '수요'와 '제한'의 개념을 포함함.

□ 배경

- 2005년 유럽통계기관장회의(CES)에 의해 위임된 태스크포스 WGSSD는 미래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개발의 세대간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경제, 인간, 천연 및 사회 자본을 다룬 보고서를 작성함.
- 2008년 CES 의장단은 차후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태스크포스의 생산 지수 셋은 세대간 측면 뿐 아니라 현 세대 및 분배성과 국제적 측면 등 유용성(flexibility)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
- 지속가능개발 측정 태스크포스(TFSD)의 업무는 공식통계의 개념을 다루고 국제적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을 위한 지수의 핵심 셋 제공을 목적으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함.

□ 보고서의 구조

- 섹션 I 은 개념 프레임워크으로써 지속가능 개발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본의 분배로 결정되는 세대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의 문제임을 설명함.
- 섹션 II는 학술서와 통계핸드북에 기초한 복지 및 지속가능개발의 측정의 최고기술에 대해 기술하고 복지, 경제 및 인적자본, 천연자본, 사회적 자본과 부, 국제적 차원으로 나누어 기술함.
- 섹션 III는 지속가능한 개발지수(SDI)의 실질적 셋 선택에 초점과 공식 통계의 품질 범주 및 이용가능성의 실질적 측면을 다룸.
 - SDI 셋을 설명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방법은 개념 분류(conceptual categorization)와 정책(policy)분류가 있음. 개념 범주의 이점은 사용자가 즉시 기본 거래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과 측정이론과 긴밀한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정책범주의 이점은 언어와 사회적 차원의 용이성과 서브-지수의 도입의 용이에 있음.
- 섹션 IV는 결론으로서 보고서가 개념 프레임워크에 기초하고 방법론적 고려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SDI 셋을 제안한다는 것과 복지에서의 국제적 거래가 측정된다는 것을 언급함.
 - 데이터 이용가능성에 관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수가 기존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도출될 수 있음을 나타냈으며 정책 대시보드(policy dashboard)는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함.

의제 5: 공식통계의 2차 및 혼합자료 (mixed sources)

주요 논점

- ◇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의장단이 2차 자료 및 혼합자료의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성과 문제점들을 열거함.
- ◇ 논의의 결론, 향후 과제와 팔로우업 액션이 제시됨.

□ 개요 및 검토의 정의와 범위

- CES의 의장단은 정기적으로 선택적 통계분야에 심층검토를 실시하며, 2009년 10월 2차 및 혼합자료 사용이 주제로 선택됨.
- 통계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1차, 비-통계 목적으로 수집된 통계를 2차 자료라고 하며 두 가지의 사용이 혼합자료(mixed source)가 됨.
- 보고서는 2차 자료의 범위와 형태(type) 제시를 위해 비한정적으로 세금, 사회보장, 보건, 개인등록, 등록단체, 건물 허가, 라이선싱 시스템, 회계 데이터 등이 포함된 리스트를 제시함.

□ 공식통계의 2차 및 혼합자료의 사용 관련 활동 및 자료들

- 현재 공식통계의 모든 도메인을 위한 2차 및 혼합자료의 사용에 관한 국제 전문가 그룹은 없고 특정 도메인이나 프로젝트의 일부로써 다루어 지는 경향이 있음.
- 국가 실례들을 주로 설명하는 다수의 논문이 웹 사이트에서 이용가능 하나 논문 검색과 카테고리를 위한 검색수단이 없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보고서는 관련 UNECE 출판물 등 8개를 제시함.

□ 공식통계의 2차 및 혼합자료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와 과제

- 법적 문제, 공공관련 문제, 재정 및 관리 문제, 방법론적 문제 등 2차 및 혼합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함.
- 법적 문제의 경우 기밀성 등의 원리 수용 차이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정부정책과 기구 간 동의를 기반으로 지원(backup)이 되어야 하며 2차

자료 사용 확장을 위한 공공신뢰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함.

- 비용문제를 위해서 민간부문은 이윤을 모색하고 공공부문은 통계기관에게 적어도 데이터 발체와 전송을 위한 비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 관리 문제로는 1차와 2차 자료의 차이가 있을 때 2차 자료의 부적합(inadequacy)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이며 변수의 정의, 시스템 분류, 시의성, 자료 간 불일치 등의 방법론적 문제가 있음.

□ 심층검토 논문의 결론

- 2차 및 혼합자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자료로부터 데이터가치를 구별하는 방법과 메타데이터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함.
- 비용절감에 대한 부담 속에서도 혼합자료는 외면당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이를 위한 업무에 대한 조정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고서는 2차 및 혼합자료의 이용과 같은 주제가 지금보다 많은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CES 의장단회의의 논의 정리

- 2010년 6월과 11월 논의된 공식통계를 위한 2차 및 혼합자료 사용 회의에서, 의장단(Bureau)회원들은 국제적 단계에서 다음 사항을 논의함.
 - 2차자료 사용을 공통 전략적이고 경영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다룰 것.
 - 주제의 개관을 제공하고 행정적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는 지식기반(knowledge base)이 필요함.
 - 2011년 CES 세미나는 공식통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데이터와 충족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구분을 다룸.
- 사무국(secretariat)은 기존 교육(training)정보로 구성된 지식 기반을 제작 및 유지할 것이며 “공식통계를 위한 행정자료의 사용”에 관한 기존 교육 자료를 개발할 예정임.

□ 후속조치

- UNECE 사무국은 공공 위키(wiki)의 형식으로 ASSIT(Administrative and Secondary Sources In Statistics)이라는 현재 진행형(언제나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수 있는) 지식기반을 제작함.

의제 8 : 교육통계 검토

주요 논점

- ◇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호주의 활동 설명
- ◇ 교육통계의 과제 및 향후 개발계획 제시

□ 개요

- 보고서는 품질교육데이터의 생산과 관련된 개념적, 관리적 평가를 전달하고 정보 격차, 중복업무 등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 전략을 제시함.

□ 교육통계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활동

- Eurostat의 업무 목표는 교육 품질 증진, 사회적 포용성과 국제적 접근성 확보이며, 2010년 업무 프로그램에는 방법론 강화, OECD/UNESCO와의 협력, 미성년자의 노동시장에 대한 데이터처리 등이 포함됨.
- OECD의 2010년 업무는 분석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AHELO*의 유용성 평가를 통한 학부학생들의 지식평가 여부 및 국제 비교성 진단, 그리고 INES*의 학습 성과지수 생산에 목표를 둠.

* 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 UNESCO는 문해율(literacy)과 교육성취에 관한 조사를 통해 교육데이터 품질 증진을 위한 OECD, Eurostat 과의 협력과 노력을 지속함.
- 세계은행은 2010업무에 유아교육개발 강화를 위한 효율성 증진 필요를 요약하고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유아교육에 관한 보고서*를 출간함.

* *The Promis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오스트레일리아의 교육통계 개발

- 호주 교육데이터베이스(ALLD, Australian Longitudinal Learning Database): ABS는 행정자료 및 지역적 도움으로 작성되며 교육부터 노동력산출까지 장기적 결과에 관한 마이크로데이터 작성을 계획함.

- 호주 조기개발지수(AEDI, Australian Early Development Index) 아동의 첫 해 학교생활에 대해 감정적 성숙도, 사회적 능력, 건강 및 소통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그 외 조기아동교육 통계, 스쿨아웃컴(school outcomes), 직업적 교육 연구가 교육통계 개발로써 진행됨

□ 문제점과 과제

- 교육평가(valuation)를 통한 비교가능 측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2001년부터 ABS는 2차 교육 성취의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학교-후(post-school) 교육의 비율을 작성하는 등 측정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국제사회에서 교육 통계에서의 행정데이터의 역할이 확립되고 다양한 자료 간 데이터 연계(linkage) 지원을 위해 충분한 통계 인프라가 갖춰져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관리되어야 함.
- 사회발전 측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써 교육기관의 품질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 증대 및 교육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가수준으로 접근하여 심도 있는 지식이 획득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함.
- 모바일에 대한 수요 및 기술 사회에서 일하는 학생 수의 증가 등으로 e-러닝의 급증은 통계사회가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분야가 되었으며 자격 취득 기관 결정 및 인터넷 교육의 품질 비교 방법 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향후 개발 방향

- 분과 간 정의 및 기준의 지속성 확보 및 인적자본, e-러닝, 유아교육 등의 측정과 분류 검토가 중요함.
- 국제연구의 보충을 위해 국가통계단체는 지역 교육기관 및 과정 등에 관한 정보 생산을 우선 할 것을 고려하고 행정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교육통계의 수집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야 함.

의제 12: 2009/2010 CES 의장단의 세 번째 회의 보고서

주요 논점

◇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의 2010년 총회 (plenary session)의 세부 내용 및 성과보고

□ 유럽통계 2010 총회의 결정에 대한 팔로우업

- 생활시간조사, 정보사회 측정, 성인지 통계, 가족 및 가구구성의 새로운 측정, 고용의 질 측정 등에 관한 관련 기관 및 국가들의 기여로 업데이트
- CES 의장단은 11월에 회의에서 국제적 위기가 통계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의 지속

□ CES 2011 세미나의 첫 번째 논의: 데이터 수집과 공유조직/SDMX 실행: 국가적 관점에서의 관리과제

- 세미나는 기술적 측면 보다는 행정적(managerial)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과 데이터공유 및 SDMX 리스크를 다룬 세션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공식 통계의 2차 자료원 혹은 혼합자료원의 사용에 대한 세부검토

- 의장단은 사무국에 의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공식통계에 대한 2차, 혼합 자료의 사용을 고려했으며 논의에서는:
 - 2차 자료 사용의 가이드라인은 품질과 신뢰성이 낮은 자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도국을 위해 도움이 될 것임.
 - UNSC의 통합경제통계에 관한 FoC (Friends of the Chair)는 경제통계에서의 2차 자료와 관련된 문제 중 일부를 다루는 핸드북을 작성중임.

- 사무국은 기존정보로 구성되고 정보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구조를 가지도록 지식기반을 구축 예정임.

□ CES 전문가 팀의 업무

- 의장단은 과거에 농업통계에 관한 태스크포스 설립 필요를 고려했으나 결정은 FAO-Eurostat 논의결과를 고려하여 연기되었으며 설립필요가 없음을 결정함.
- 통계 사업 아키텍처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High-level 그룹(HLG-BAS)의 필요에 대해 논의함.

□ 기후변화 관련 통계에 관한 UNECE 통계국의 업무 성과보고서

- 의장단은 기후변화 분야의 통계기구 활동에 대한 조사에 관한 제안서 실행을 사무국에게 요청했으며 에너지 통계에서 협력을 위한 수요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에너지정보국과 교류하도록 격려함.
- 사무국은 지속가능 에너지에 관한 UNECE 위원회로부터의 에너지 취약성지수 평가 수행을 요청을 받았으나 CES는 리소스부족 및 시간 제한으로 평가를 수행하지 못함.
- 사무국은 산림 데이터를 UNECE 통계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도록 팀버 (Timber)섹션 지원이 가능하나 의장단은 리소스부족을 이유로 통계국의 공동주최를 수행하지 않도록 권고함.

□ 기타 사항

- 사무국은 CES 회의의 참고자료 및 CES 권고사항과 가이드라인 개발에 대한 기반으로써 사용된 자료들에 대한 승인에 향후 제공하도록 권고.
- 리소스부족으로 장기간 연기되었었던 문화통계에 관한 회의는 매우 긍정적으로 문화통계 분야에 중요한 발전을 유도함.
- 다음 CES 사무국 회의는 제네바에서 2010년 11월 3-4일에 열릴 예정이며 뉴욕에서 2월 23일 관련 임시회의 예정.

의제 13 : 2010/2011 CES 의장단의 첫 번째 회의 보고서

주요 논점

- ◇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의장단 회의 검토 내용 설명
- ◇ 의장단의 향후 검토내용 및 관련기구의 업무상황, 회의일정소개

□ 개요

- CES 의장단의 2010/2011 첫 회의가 OECD, IMF, UNECE, ITU, WTO 등의 국제기구의 참석으로 2010년 11월 3-4일 제네바에서 열림.

□ 선택된 통계 영역의 심층 검토

- 생활시간조사에서 더 비용효과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의장단은 생활시간조사 태스크포스 설립을 승인함.
- 정보사회측정 및 과학, 기술, 혁신 분야는 빠른 발전에 따른 공식통계 변화 수용을 고려해야하며 유용한(flexible) 매커니즘이 필요함. 호주, OECD, 사무국은 업무그룹을 위한 인벤토리(inventory) 설립 예정.
- 공식통계의 2차 자료 및 혼합자료에 관한 심층 검토가 의장단 코멘트에 기초해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Eurostat, 브라질, 우크라이나에 의한 빈곤측정에 관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빈곤 주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함.

□ 2011 UNECE 프로그램

- 의장단은 이민, 성인지, 환경, 기후변화에 관한 업무를 추진했으며 2011년 통계프로그램 주제를 승인함.
- 통계 비즈니스 아키텍처에서의 전략적 개발을 위한 고위그룹(HLG-BAS)

업무가 런칭되었으며 국제적 차원의 개발 방안을 CES 2011총회에서 제안할 예정이다.

- 통계 보급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통계 식자율(literacy)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논문을 검토함.

□ 국제적위기의 영향이 통계시스템에 미친 영향에 관한 2010 CES 세미나 후속조치

- 지난 2년간 금융위기 표출 및 데이터 격차 해소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음에 주목했으며 금융데이터와 실제 경제간 연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OECD 이니셔티브의 참조를 언급함.

□ CES의 2011총회 준비

- 승인을 위한 유럽통계기관장회의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위해 국가들의 협력과 사례연구 제공을 권장함.
- 사무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측정 업무를 11월 18-19일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고려할 예정이다.
- 사무국은 제네바를 국제통계의 허브(hub)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스위스 권위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행사를 기획함.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활동 준비

- WTO는 무역거래와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내부적 수요 충족 및 무역통계의 기준 개발을 위한 이론적 업무를 수행함.

□ 향후 CES 총회 및 다음 의장단 회의의 날짜 및 시간

- 의장단은 현재 방식과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CES 총회와 CSTAT 회의 시간과 기간을 2011년 가을에 결정할 것임.
- CES 의장단회의: 2011년 2월 23일 뉴욕, 59차 CES 총회: 6월 14-16일 제네바, CES 의장단 회의: 6월 18일 제네바, 11월 2-3일 제네바.

의제 16: 2011/2012 및 2012/2013 기간동안의 회의를 위한 의장단 선출

주요 논점

- ◇ 2011년 CES(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장(Chair)과 부장 (Vice Chair) 선출 과정, 현재 임원 및 관련규정 설명

- 2011년 6월 16일 CES 총세션에서 2011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2년 동안의 의장과 부(Vice)장을 선출함.
- 규칙에 명시된 대로 회의의 어떤 회원도 의장단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으며, 회의의 회원은 UNECE의 업무에 정기적으로 참여한 UN의 어떤 회원국의 통계국 장으로 정의됨.
- 따라서 UNECE 외부의 국가에서 통계국 장이 의장단으로 선출될 수 있고 규정에 따르면 8명 중 6명은 UNECE 지역에서, 나머지 1~2명은 외부지역출신으로 선출 가능함.
- 현재 의장단은 2009년 선출되었거나 2010년 의장단 장 지위를 떠난 위원을 대체하여 공동 위임된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됨.
 - 의장: Ms. H. Jeskanen-Sundström(핀란드)
 - 단원: Mr. B. Pink (호주), Mr. E. Pereira Nunes (브라질), Mr. G. O'Hanlon (아일랜드), Ms. I. Krizman (슬로베니아), Mr. O. Osaulenko (우크라이나), Ms. K. Wallman (미국)
- 의장단 회원을 위한 형식적인 후보는 없고 선출은 회의의 전(previous) 장 중 가장 선임(senior)에 의해 주회된다고 규정, 현재 미국의 Ms. K. Wallman이 선거를 주회

의제 30: 데이터수집의 조직 및 국가통계기관들을 위한 공유

주요 논점

- ◇ 캐나다 통계청의 통계데이터 수집 모델 설명
- ◇ 데이터 공유에 대한 캐나다 통계청의 구체적 사항 제시

□ 통계 수집을 위한 조직모델 (organizational models)

- CAI(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를 수용하여 현장에서 등록되는 인터뷰어와 전화 인터뷰를 위한 전자 질문서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블레이크(Blaise) 적용(application)함.
- 다양한 멀티모드 조사도 이루어져서 사업조사의 일부는 초기 우편조사 후 누락 혹은 무응답 후속조치로 CATI 실행.
- 주요 CBA(corporate business architecture) 리엔지니어링 이니셔티브를 실행 중임. CBA내 수집체계를 위한 주요이니셔티브는 지역 인터뷰 역량을 극대화, 수집시스템의 현대화 및 효율화, 그리고 증진된 질문 옵션개발 등임.

□ 멀티모드 데이터 수집

- 응답률을 유지하려는 수집 노력은 수집 예산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으며 모든 조사응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다양한 응답모드 옵션보유.
- 캐나다 통계청은 E-질문지 옵션을 주요 가구조사 및 대부분의 사업 조사를 위해 개발할 계획이고, 다른 국가통계국들과 이미 협력하여 우수사례 및 경험을 교류하고 있음.

□ 스마트 조사(smart survey) 을 디자인하기 위한 조사 파라데이터 (paradata)의 사용 및 실행적 접근

- 컴퓨터 도움을 받는(Computer Assisted) 조사의 데이터수집에서 얻게되는 세부정보를 뜻하는 파라데이터는 전환(Transaction) 기록 및 감사(Audit) 기록, 그리고 조사원 지급(Pay) 시스템 정보로 나뉨.
- 파라데이터는 객관적 측정으로 일화적(anecdotal) 정보를 증대함으로써 데이터수집과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함.
- RD(responsive design)은 남은 사례들을 위한 전략을 조정하도록 수집 전 혹은 동안 가능한 정보를 사용하는 조사데이터 수집 접근방법이며, RD의 실행은 향후 조사에 유용할 관리도구와 절차 개발을 유도함.
- 향후과제로는 패러데이터 추적, 다양한 소스 간 패러데이터 조정, RD외의 다른 접근필요, 사용자에게 편리한 소프트웨어 틀에 대한 수요 등이 있음.

□ 데이터 공유로의 접근

- 캐나다 통계청의 데이터 액세스 내용
 - 향후, 전략적 정책결정 및 학계연구로의 데이터 액세스 확장에 있어 더 복잡한 요청들을 다룰 수 있는 모델로 강화함.
 - 액세스를 위한 전략적 프레임웍의 개발과 실행을 지원하고자 사업협회들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
 - 마이크로데이터로의 접속을 다양화와 확장은 각 액세스 모드의 존재 및 다른 모드와의 상호관계를 고려해야 함.
 - 이 액세스 옵션의 개발은 캐나다 통계청의 인적, 재정적 자원에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나 수집데이터의 빠른 보급 능력에도 작용할 것이므로 이 영향의 완화 전략이 제안되어야 함.